

독립 정신

2015 1~2



통권 79

권두언 전시작전통제권은 국방주권이다_이만열

특별기획 주권과 전시작전통제권, 무엇이 문제인가_문정인

친일파와 그 후손들(1) 잘못 꿰진 첫 단추 '교육관료 편'_최광웅

김정록의 회고 / 제2부_겨레는 살아있다 6·25동란, 그리고 제1공화국의 몰락_김정록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파주 지역의 독립운동_이철민

백년편지 사랑과 존경을 담아, 김마리아 선생님께_이충옥

김상옥(金相玉 : 1890 ~ 1923)

나의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 만나봅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위치 : 서울 효제초등학교 내)

김상옥(金相玉)



1890년 서울 출생인 김상옥 의사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자라 14세부터 낮에는 철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하였고, 1910년에는 경성영어학교를 다니면서 국제정세와 서양문화에 안목을 넓혔다.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것은 3·1 독립운동 이후부터였다. 그 해 4월 혁신단(革新團)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혁신공보』(뒤에 『독립신문』으로 개제)를 발간해 독립사상을 계몽, 고취하였다. 12월에는 암살단을 조직해 일본 고관 및 민족반역자에 대한 응징 및 숙청을 기도하였다. 특히, 1920년 4월에는 한훈·유장렬 등과 함께 전라도 지방에서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총살하였다.

1920년 8월 24일에 미국의원단이 동양 각국을 시찰하는 길에 내한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 해 5월부터 김동순·윤익중·신화수·서대순 등의 동지들과 함께 환영인사로 나오는 조선총독 사이토 및 일본 고관을 암살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거사계획은 실전에 옮기기도 전에 일본경찰에게 탐지되어 동지들이 불잡히게 되었고, 이에 단독 거사를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아 10월 말 상해로 망명하였다.

임시정부요인들과 독립운동 거사계획에 참여하는 동시에 의열단에 입단하였으며, 한당사령부장(韓黨司令部長)을 맡기도 했다. 1922년 11월 상해에서 임시정부요인 이시영·이동휘·조소앙·김원봉 등과 논의해 조선총독 및 주요 관공서에 대한 암살·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이듬해 1월 조선총독의 동경행을 기회로 삼아 총살하려는 계획을 세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서울로 갔으나 상해 주재 일본 경찰의 통보로 일제가 경계를 강화하자 조선총독 암살 거사는 시일을 끌게 되었다.

김상옥 의사는 1923년 1월 12일 밤 독립운동가 탄압의 상징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투탄 당시만 하더라도 의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일본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17일 새벽 3시 은신처인 매부 고봉근의 집이 발각되었다. 고봉근의 행랑방에 들어 있는 여자가 종로경찰서에 있는 친정오빠에게 밀고하여 탄로난 것이다.

김상옥 의사는 은신처가 탄로나자 단신으로 두 손에 권총을 들고 총격전을 벌였다. 먼저 종로경찰서 유도사범이며 형사부장인 다무라를 사살하였다. 이마세·우메다 경부 등 수 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추격하는 일본을 따돌리며, 눈 덮인 남산을 거쳐 금호동에 있는 안장사(安藏寺)에 이르렀다. 여기서 승복과 짚신을 빌려 변장하고 산을 내려왔다. 19일 새벽 일본경찰의 삼엄한 경계망을 피해 효제동 이혜수의 집에 은신하여 앞으로의 거사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22일 새벽, 최후 은신처마저 일본경찰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김상옥 의사는 두 손에 권총을 쥐고 대총격전을 3시간 반 동안 벌여 구리다정부를 비롯한 10여 명을 살상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탄환마저 다하여 마지막 남은 탄환 한발을 가슴에 겨누고 벽에 기댄 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자결, 순국하였다.

그 때 효제동 총격전의 상황을 당시 중학생으로서 목격한 화가 구본웅이 그의 시화첩에 감동적인 시와 당시의 광경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남겼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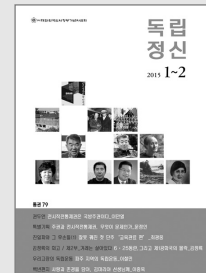


독립정신

2015 1*2

통권 79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04 권두언_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방주권이다
| 이 만 열



07 특별기획_ 주권과 전시작전통제권, 무엇이 문제인가
| 문 정 인

12 친일파와 그 후손들(1)_ 잘못 꿰진 첫 단추 '교육관료 편'
| 최 광 응

18 긴급제안_ 돈의문 역사문화공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려 합니다.
| 김 자 동



20 김정록의 회고_ 제2부, 겨레는 살아있다 2-1. 6·25동란, 그리고 제1공화국의 몰락
| 김 정 록

46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파주 지역의 독립운동
| 이 철 민

52 백년편지_ 사랑과 존경을 담아, 김마리아 선생님께
| 이 충 옥

55 영화읽기_ 영화 <인터스텔라>, 인간 너머의 우주
| 이 두 희

59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 총칼이 두렵지 않던 전주 기전의 딸 '김공순'
| 이 윤 옥

61 임정서가_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녹두 전봉준 평전 친일문학론 홍범도 장군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
| 편집부

71 독립정신 이모저모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방주권이다



이 만 열
前국사편찬위원장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 자주국방에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뤄버렸다는 것이다. 2012년에 환수키로 된 것을 이명박 정권은 2015년 말로 미루었고, 선거공약에서 전 정권이 약속했던 그 기간에 전작권을 환수키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등장한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사실상 2020년대로 미뤄버렸다. 2012년과 2015년에 환수하겠다는 약속은 2020년대의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제 그 가능성마저 희미하게 보이니 이것이 자주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의 국가 정론인지 정말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은 전시에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군대를 통솔하는 실제적 상황에서는 합동참모부가 이를 위임받아 행사한다는 것이다. 군대를 통솔함에는 평시의 군대를 지휘하는 것과 전시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

시에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자주국방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다. 그러나 정작 전작권을 외국에 이양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다. 이승만은 6.25 전쟁 중인 1952년 7월 14일에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을 유엔군(미군)에 이양했다. 그러다가 월남전에 지친 미국이 1969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약소국들은 스스로 자신의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어서 카터 대통령도 한국에 투입된 미군을 철수하려고 하자 한국은 핵무기 개발과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로 대응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돌아가자 핵무기 개발은 중지되고 말았다.

전작권 반환의 논의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1995년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이 이양 받는다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급부상되었다. 이를 계기로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 만에 이양받게 되었다. 전작권 이양 문제가 본격화되는 노무현 정권 때다. 이 때 국방부가 미군의 증원 없이도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노 대통령은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가 수립을 위해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반환 문제가 가시화되자, 지금도 그렇듯이,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이 무렵에 나온 “똥별” 이야기는 한동안 가십거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월 21일,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10월 28일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일정을 비로소 공식화해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미국과의 협의에 들어갔고,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정권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되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했지만, 2014년 10월 제 46회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환경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은 2020년대까지로 연기하게 되었다. 110년 전 외교권이 빼앗길 때 방관하고 협조했던 다섯 대신을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규정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상징



되는 국방주권을 기약 없이 워싱턴에 자진 상납한 우리 세대를 두고는 어떤 평가가 주어질 것인지 두렵다.

전작권은 국방주권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전작권 행사를 통한 국방주권의 실현을 통해서다.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서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둘 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끼었다는 것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으로서는 못할 일이다. 전작권 없이 안보를 튼튼히 과연 가능하며, 전작권 없이 통일대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청와대 벙커에서 고래고래 ‘복수’를 다짐하는 절기가 있었지만,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결정적인 대응이 가능할까. 안보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전작권 행사를 통한 국방의 책임이 국군에게 주어질 때 안보는 더 튼튼해질 수 있다. 연간 방위비를 이렇게 술하게 쓰면서도 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전작권이 남의 손에 주어져 있다면, 정말 위급할 때 스스로의 판단 하에 국가수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주권과 전시작전통제권, 무엇이 문제인가



문 정 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10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이하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물론 한국의 연합방위 능력을 감안할 때 이전에 합의했던 2015년 환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아예 시간을 특정하지 말고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안정화 등 ‘여건’을 보아가면서 환수협의를 하자는 게 이번 합의의 특징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를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보는 국내 시각이 곱지만은 않아 보인다. 미군에 대한 과도한 의존, 한국군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그리고 군사주권의 대미 예측화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평



가가 제기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군사주권 관련 사항이다. 정부당국은 ‘전 작권 환수와 군사주권’을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고 이를 문제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전작권 환수 지연은 독립국가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왜 이러한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가?

우선 주권 개념부터 살펴보자. 사전적 의미로서 주권이란 “국민·영토와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성, 독립성, 절대의 권력을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면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전작권과 관련한 주권 문제는 ‘대외적 자주성’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주권 개념은 네 가지 시각에서 접근되고 있다. 그 첫째는 국가의 크기나 강약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는 대외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질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웨스트팔리아(Westphalian)’적 주권개념이다. 이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공존의 질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그 크기와 강약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로서 대표할 수 있다는 ‘바텔(Vatellian)’적 주권 개념이다. 오늘 날 유엔 총회가 그런 주권 개념 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세 번째는 ‘경험적(empirical) 주권’ 개념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웨스트팔리아적 주권 개념은 하나의 조직화된 위선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의 주권은 침해 받아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 가치나 국제법에 의거 침해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주의적 개입을 주장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주권 개념을 옹호해 왔다. 유엔의 보호책임도 이 범주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절충적(compromised)’ 주권 개념이다. 개별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 자신의 주권을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군사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군사주권을 특정하고 있는 헌법 74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국군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뉜다. 군정권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 권한을, 군령권은 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명령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OPCOM)은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예하 부대를 편성하고 목표를 지정하고 명령·지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및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에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OPCON)은 어떤 부대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지칭한다. 시간적·공간적 또는 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 임무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부대를 전개 또는 재할당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작전통제를 실시할 수도 있고 이를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특정한 임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말한다.

엄격히 말해 현재 우리 대통령은 군에 대한 절대적인 군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군령권 중 작전지휘권 역시 한미연합방위의 틀 안에서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작전통제권이 미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한미연합사령관에 이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국군통수권, 즉 군사주권의 일부가 분명히 미국에 양도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작전통제권이 중요한 이유는 한미 지휘부가 전쟁을 결정하고 작전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심각한 정치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평양 지구 전투에 한국군 지상군을 대거 투입했다가 수천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다. 투입 결정은 미군 장성이 내리고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역설적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는 극히 수용하기 힘든 정치적 리스크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조치는 기형적 군사주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다. 65만 대군을 가진 한국군이 2만7천명을 가진 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어째서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했던 것인가? 박정희 정권 시절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인계철선(trip wire)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이 6.25와 같은 대규모 남침을 해 올 경우, 미국이 작전계획 5027에 의거 지상군 69만명, 전투기



2200대, 5개 항공모함 전투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전제 하에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고 전, 평시 전작권을 미국 측에 넘겼던 것이다.

사실 작계 5027에 따라 대규모 미군 지원이 있게 되면 미군의 규모가 한국군을 능가하게 되고 현재와 같은 연합사 구성과 전작권 이양은 문제 될 게 없다. 병력 수가 많이 투입된 동맹국이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 현재 미 지상군 규모가 63만 명밖에 되지 않고 보유 전투기가 3,135대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대규모 병력을 100일 이내에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일단 유사시 우리 군이 주력, 미군이 지원군이라는 역할 분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전작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것은 다분히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하겠다.

미국 측에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전작권 환수 이후 종전에 합의한 바 있는 한미 병행 사령부가 아니라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새로운 연합사령부 구성 가능성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인바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휘 통제’의 통일(unity in command and control)이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 이유는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동맹이 무너져 당장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군사주권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 아닌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이 우리의 소중한 전략적 자산임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과도한 대미 의존이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북한의 고압적인 태도만 해도 그렇다. 북측이 우리 군을 ‘괴뢰군’이라 매도하고,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양자 평화협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전작권에 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해도 즉각적인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없고, 대규모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도 없는 우리 군을 북측 정책결정자들이 우습게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라 하겠다. 요컨대 과도한 대미 군사 의존이 평양의 군사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우리와의 신뢰구축,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조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역설 구조를 감안해서라도 전작권 환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도한 대미 의존 심리에 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문제

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이유는 한국군의 나약함과 대미 의존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방부로부터 국방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 없이는 대북 군사 억지력을 확신 할 수 없다’는 게 그 주 내용이었다. 당시 노무현 당선자는 ‘국방부 보고 내용이 70년대 자신이 예비군 훈련 받을 때의 그것과 하나 다를 바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미국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의존이 한국군 최대 병폐’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전작권 환수 일정이 가까워오면서 한국군의 대미 의존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줄줄이 터져 나오는 한국군의 위태로운 모습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GOP 총기 난사,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야전군사령관의 임지 이탈과 음주추태, 갖가지 성추행·성폭행 사건 등 군벌에 관계없이 말단 병사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수십 건의 사건사고로 군은 비아냥과 비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강해이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와 과연 무관할까. 그동안 구조화되어온 대미 의존의 집단심리가 군기 문란 일상화의 바탕에 깔려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가 군사주권의 상당 부분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 북한의 군사 위협 관리라는 국가이익을 위해 전작권이라는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한시적으로 양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주권’ 행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전작권 환수의 무기한 연기가 우리의 국가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사려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잘못 쾜진 첫 단추 ‘교육관료 편’



최 광 응
정치데이터연구소장

2015년 금년은 광복 70년을 맞는 해이다. 일본제국주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두 세대가 지나고 10년이 더 흘렀는데도 여전히 식민잔재가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8. 15 광복 직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직후 미 - 소 간에 형성된 냉전 분위기 속에서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우리 자력으로 광복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정책의 희생양이 돼 버린 것이다. 따라서 친일파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 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정부 수립으로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들은 이승만의 정권유지와 연장 기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반민특위는 제헌국회가 성립하면서 마련한 친일파 청산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온갖 방해 책동으로 채 1년이 안 되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일제를 옹호하며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과 이광수 등 수많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색출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1인 독재를 유지하던 이승만은 그의 주된 기반인 친일 관료들이 반민특위에 의하여 검거되자, 그들이 반공주의자라는 이유로 석방을 종용하였고, 노골적으로 특위활동을 방해하였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 6일 친일 경찰의 반민특위 산하 특별경찰대 강제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해산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반민특위 활동의 실패는 친일세력이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이처럼 친일파들을 중용했으며, 특히 중요한 문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을 많이 썼다. 국사 교육을 담당하며 민족정기를 함양하는데 역할을 해야 할 문교부장관이 친일파라니? 게다가 문교부는 국사 편찬업무까지 맡고 있던 터였다. 이승만이 임명한 문교부장관은 총 7명 중 3명이 친일파였다.

2대 문교부장관 백낙준은 초대 연세대 총장 출신이다. 그는 1946년에 연희전문학교가 연희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초대 총장이 되었다. 일본식 이름이 白原樂濬인 그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한국기독교교회사’를 집필할 정도로 교계와 깊은 교감을 갖고 있었다. 미국 예일대 박사 출신인 백낙준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전쟁용 비행기 헌납 지원단체인 조선장로교 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 등을 지내면서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인의 해방을 위한 성전’이라고 미화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물이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4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4대 문교부장관 이선근은 조선일보 정치부장 출신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했다. 만주로 간 그는 만몽산업(주)를 설립, 관동군에 군량미를 지원하며 친일대열에 가세한다. 마침내 최남선과 함께 만주의 항일세력을 토벌하던 관동군을 측면에서 지원한 조선인 주축의 대표적 친일조직인 ‘동남지구특별공

작후원회'의 상무위원을 지낸 공로를 인정받아 만주국 국회적인 협화회 협의원에 발탁됐다. 그는 광복이 되자마자 반탁학생총연맹 고문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지지기반이 필요한 이승만에게 접근했으며, 장관직을 맡아 국사편찬위원회를 설치했다. 친일 중에서도 1급 친일파가 문교부장관에 국사편찬위원회라니? 이후에도 그는 성균관대 총장을 거쳐 문화재위원장, 영남대 총장, 동국대 총장, 대한교육연합회장, 초대 정신문화연구원장 등 문화·교육계의 요직을 거의 독식하였다.

문교부장관 재직 중이던 1956년 정·부통령 부정 선거에 적극 개입한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결국 국회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어 불명예 퇴진한다. 그는 대학총장 시절에도 내놓고 유신체제를 선전한 인물이다. 정식으로 '유신옹호' 논문도 쓰고 강연도 여러 차례 하러 다녔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80년 8월,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장군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데 국민의 여망이 모아지고 있다."고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1983년 사망할 때까지 그는 과거행적에 대해 단 한 번도 뉘우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 오히려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동작동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역에 잘 묻혀있다. 그의 장남 이병휘는 유명 원자력공학자로 과학기술처 원자력위원,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KAIST 신홍원 자력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미국으로 건너간 차남 이병준 역시 과학자이다. 장손자인 이인규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7대 문교부장관은 친일사학자로 평가받는 이병도이다. 그는 스승 이마니시류(今西龍)로부터 사료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배격한다는 이른바 실증사학을 배우고 익혔다. 그 결과 일제 식민지통치를 묵인·동조하는 가운데 관변 연구기관에 종사하면서 일제의 한국사 왜곡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했다. 일제가 총독부 산하에 식민지배의 정당성 근거를 날조하기 위해 설치한 조선사편수회에 간부급 연구자인 수사관보(修史官輔) 또는 촉탁으로 일하면서 우리 역사 왜곡의 문헌들인 '조선사', '사료총감' 등의 간행에 관여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수회 경력 및 그의 연구 활동을 근거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4,776명에 포함하여 발표한다. 한 때 중앙학교 교사를 역임한 전력 때문에 2005년 고려대 총학생회가 '고려대 100년 속의 일제잔재 1차 인물'에 포함시켰고, 서울대 총학생회도 '서울대 친일인물 1차 12인 명단'으로 발표하였다. 서울대 대학원장, 국사편찬위원장, 국민대

학장, 학술원 회장 8선, 고려대 교우회장 4선,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그는향년 94세로 장수까지 한다.

그의 후손들도 하나같이 부유하게 살거나 살다 갔다. 5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넷이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10여 년 전 세상을 뜬 그의 장남은 서울의대 생화학 교수였고, 차남 이춘녕도 서울농대 학장을 지냈다. 3남 이태령도 서울사대 교수를 지냈고, 4남 이동녕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막내 이본녕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의대 교수를 지냈다. 20여년 전 사망한 큰 사위는 현대미술사의 거장 장욱진 화백이며, 차녀는 내과 의사인데 같은 서울의대 내과 교수이자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에게 시집을 갔다. 즉 친일파끼리의 혼맥인 셈이다. 조선의 강제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던 대표적인 친일자본가 민영휘가 세운 휘문고에는 그의 동상이 자랑스럽게(?) 세워져 있다.

세 명의 손자들은 모두 교수를 지냈다. 큰 손자는 아주대 화학과에서 정년퇴직한 명예교수이며, 둘째는 서울대 총장을 지내고 현재 KAIST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장무이다. 막내는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문화재학을 공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으로 들어가 참여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초대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이견무이다. 그는 이 후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문화재청장을 역임했으며, 용인대학교로 옮겨 문화재대학원장을 지냈다.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당시 한 사람으로서 적극 협력하여 중추원 부의장까지 올랐던 친일파 민병술의 아들 민복기 前대법원장이 바로 이병도의 조카사위이다. 일본명이 岩本復基인 그는 1936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194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가 되어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재판하였다. 그는 유신체제가 극성이던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장이었으며, 정권의 입맛대로 도예종 등 8명의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맞게 하였다.

만주국 장교 출신이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도 친일파를 배척하지는 않았다. 11대 문교부장관 김삼협은 고려대 법대 교수 출신이다. 박정희는 만 42세에 평교수 경력이 전부인 그를 문교부장관에 발탁한다. 그의 집안 배경 때문이었다. 이후 동아일보 감사를 거쳐 다시 고려대 총장을 중임하였고, 1980년 신군부의 요청을 받아 국보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전두환 정권 아래 16대 국무총리 임명되었으며, 이

후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그의 부친 김연수는 삼양그룹 창업주로 일제 강점기 만주국 명예총영사, 중추원 참의, 조선임전보국단 및 조선국민의용대 간부 등을 지내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학병 지원을 권유하는 연설 활동을 벌였다. 그는 보성학교(현 고려대) 경영 및 동아일보 운영 등으로 사회 활동에 나선 형 김성수를 대신하여 경성방직의 경영을 주도하면서 조선총독부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오랫동안 친일 기업인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는 거액의 국방헌금을 기부하는 등 일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군수산업에 뛰어들었고, 전쟁 지원을 위한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는 1949년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이내 풀려났다. 김연수는 검찰부에서 자신의 죄과를 순순히 시인하고 속죄하였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수록되었다.

그는 7남 6녀를 두었는데, 그가 설립한 삼양그룹은 3남인 김상홍과 5남 김상하의 공동 경영 체제를 거쳐 손자 김윤(김상홍의 아들)이 회장을 맡아 사촌들과 함께 경영하고 있다. 김상협은 그의 차남이다.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여 교장에 취임한 김성수는 김상협의 백부이다. 그는 광복 후 정치인으로 변신,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민주국민당의 대표 격인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친일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과 이사를 지냈다. 이후에도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와 흥아보국단 결성준비위원, 조선임전보국단 감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병제와 징병제를 찬양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경성군 사후원연맹에 국방헌금으로 거금 1,000원을 납부했다. 1943년~45년 기간 동안 매일신보 등에 학병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총 25편의 글을 기고했는데, 1943년 11월 6일자 매일신보에 <대의에 죽을 때, 황민의 책무는 크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제군의 희생은 결코 가치 없는 희생이 아닐 것을 나는 제군에게 언명한다. 제군이 생을 받은 이 반도를 위하여 희생됨으로써 이 반도는 황국으로서의 자격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며 반도의 미래는 오직 제군의 거취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고려대 설립자인 그는 알려진 동상만 해도 8개나 된다. 고려대 본관과 중앙고의 입구에 커

다란 입상이 서 있고, 서울대공원과 동아일보 사옥, 그리고 인촌기념관 등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를 기념하는 인촌기념관도 있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인촌상도 제정돼 있다.

한 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김성수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가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일제가 주는 작위도 거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일제 징병을 찬성하는 신문 기고는 명의가 도용당했다고 말한다. 이 교과서에 의하면, 김성수는 친일파가 아니라 오히려 일제의 탄압을 받은 독립투사다. 그러나 그 역시 2009년 대통령 직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4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밖에도 친일파 후손들은 교육권력 요소요소에 여전히 터를 잡고 있으니 셀 수 없을 만큼 그 수요가 많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꼽자면, 화신백화점 창업주이자 반민특위 1호 검거자 일 만큼 극렬한 친일파였던 박홍식이다. 그는 1944년 전투기 생산 기업인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를 설립, 종전 직전에는 자신이 운영 중이던 광신학교를 조선비행기공업학교로 바꾸어 전투기 생산 인력을 양성할 정도로 군수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했다. 그는 태평양전쟁 말기 친일인사들의 총본산이었던 임전대책협의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광신중·고등학교에는 2001년까지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의 맏아들 박병석은 서울 광신학원 이사장이며, 딸 박봉숙은 이화여대 교수를 지냈다.

백낙준과 이선근, 이병도, 김상협 등 친일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교육부장관을 지내는 나라에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 역사교육도 기대할 수 없으며,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가 등장하는 것이 어찌면 자연스럽겠다. 제자를 학도병으로 보낸 교장의 동상과 기념관이 학교에 버젓이 세워지는 현실에서 과연 일본을 향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제대로 촉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71건 대 0건. 프랑스가 나치에 협력했던 자들을 대대적으로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나, 우리는 반민특위에서 단 1명도 처단하지 못한 후과로 오늘 까지도 중병을 앓고 있다. 

돈의문 역사문화공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려 합니다.

서울시는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신문로2가동 일대에 돈의문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실무부서는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인근 환경과 연계되는 테마시설을 공원에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삼성병원 입구에 위치한 유한양행 옛 사옥을 ‘건축도시재생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할 서울시가 간과하고 있는 인근 시설물이 있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거주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라고 불리는 경교장입니다. 강북삼성병원 안에 있는 경교장이유한양행 옛 사옥 바로 옆입니다.본인은 유한양행 옛 사옥을 경교장과 연계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 임시정부기념관이 들어선다면 송월길을 따라 돈의문, 경교장, 흥남파가옥, 덕쿠사, 한양도성, 독립문으로 연결되는 근현대사 테마 길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지로만 기능할 뿐, 전시와 교육기능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좁은 경교장의 공간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은 광복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몇 해 안남은 2019년은 3.1운동 백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창설 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임시의정원을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으로 삼았기에, 국회 창설 백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세습군주제가 민주공화정으로 변화된 우리 역사의 전환점,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창설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창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헌법 전문에 그 법통승계가 명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 세기가 지나도록 아직 제대로 된 기념 시설물 하나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시설은 당연히 국가가 주도해서 건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시기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겼다고 주장하는 일부 친일 세력이 득세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차원의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민족의 독립의지를 선양하고 그 위대한 정신과 역사를 기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더욱 중요한 책무가 됩니다. 유한양행 옛 사옥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의적으로도 적절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민족정신을 올곧게 세우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기념관이 임시정부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전시와 교육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메카로 자리 잡는다면 2019년은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돈의문 역사공원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많은 분들의 지지와협력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 자 동

제2부. 겨레는 살아있다

2-1. 6·25동란, 그리고 제1공화국의 몰락



김 정 록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子

지금 우리나라에 정의의 가치가 전도되는 매우 걱정이 될 만한 일이 특정 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 세력은 처세의 달인들답게 낙하산을 타고 역사의 영향권 곳곳에 내려앉아 가당찮은 일을 꾸미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정기(正氣)를 빼내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의 민족혼을 말살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국부론을 끊임없이 들먹이고 있다.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후대들의 의식을 반신불수로 만들려고 하니 걱정이 안 될 수 없고, 이승만 국부론을 합당화하자면 그의 행적으로 봐서 거짓 역사를 쓰지 않을 수 없으니 걱정이다. 이들 주장의 선악을 가리려 한다면 먼저 국부의 가치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예로부터 사람 됨됨이를 헤아리는 것은 몸가짐의 신(信), 말투의 언(言), 배움의 서(書), 바른 인식의 판(判)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내력이었으니, 한민족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가 되는 국부라 하면, 신언서판이 반듯하여 하늘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조건이 될 것이다. 우러러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선행과 선정으로 모두의 귀감이 되는 것은 물론 후대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이승만을 모르는 후대는 역사를 통해 사람 됨됨이를 가늠하게 될 텐데 사초에 기록

된 그의 흉측한 위정사를 보게 되면 승복하겠는가. 국부로 추대한 그 시대에 산 선대는 후대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국부의 자격은 삭탈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지구촌으로 좁혀진 오늘날의 세계로부터 품격이 고매하며 존경받는 지경이어야 한다.

그때의 세계는 이승만 정권의 불의를 심판했고, 4·19의거를 정당하다고 규정했었다. 가령 히틀러를 독일이 국부로 삼는다면 세계가 동의하겠는가. 이승만 국부론은 이를 충족하려면 가짜 미화, 가짜 찬양을 많이 지어내야 하니 그가 통치한 제1공화국의 역사는 가짜 투성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후대들에게 미치는 부도덕성 해악이 뻔히 보이는 역사의 곡필을 외면하는 것은 선대로서의 도리도 아니며, 양심도 아니라서 이승만 정권의 12년 헌정 과정을 회고록에 쓰기로 했다.

이승만 제1공화국의 시작은 국난위기의 6·25동란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 헌정사 12년 안에는 이승만 정권의 온갖 전횡과 불법, 반민주적 포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이승만 추종 세력의 성향으로 봤을 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을 것 같다. 일찍이 민주국가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헌정 파괴 통치를 펴서 분노하는 국민들로부터 규탄 받고 쫓겨난 분을 국부로 추앙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그렇게 보이게 한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힘이 실려 있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을 젖혀놓고, 우리의 후대들이 선악을 구분하는데 가이드 역할이 된다면 그것으로 큰 보람을 삼겠다.

6·25사변은 적의 기습 남침으로 패퇴한 것이고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정부는 북측의 남침 정보를 날날이 파악했음에도 국방 책무를 유기한 것이 실상이었고, 정부는 이 사실을 실토했다. 따라서 수도 서울이 개전 3일 만에 함락되고 100만의 인명피해, 10만의 납북인사, 전국토가 초토화되어 국민의 생계가 망가진 것은 통치권자가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무인 국토방위와 국민보호를 방치한 책임을 묻기에 충분했다. 또한 반민특위가 친일 청산할 때, 친일 군정의 등용을 추궁하는 국회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는 국방의 기술, 치안의 기술이 있어서 등용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었다.

바로 이인재라고 하는 자들이 국방과 치안을 맡고 있을 때 사변이 터졌다. 이들이 과연 기술자였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엉터리 인사였음이 당장 드러났다. 그러니 이런 인사가 낳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 모든 전선이 일시에 무너지고 일패도지 당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로부터 3년 1개월의 전쟁기간과 전후 수습의 10년 동안 우리 백성이 겪은 국난극복의 고통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참상이었다. 지금 구호단체에서 돕자고 호소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기아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기아선상에 있었다.

북의 침략에 밀려 피난 수도 부산에 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에 군사 원조를 요청했으나 견제를 당해 어쩔 수 없었다며 그가 정당했다고 되레 국회를 혼계했었다. 국무에 바쁜 대통령과 각료를 오라 가라 했다면... 미국이 견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을 견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파시스트 성정을 우려한 것이 본질이었다. 미국과 우방이라고 눈이 없고, 귀가 없겠는가. 독재와 전횡을 일삼는 그를 보는 우방은 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신뢰를 잃게 한 것이 군사원조를 회피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은 근신하고 자중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현정질서를 관권과 금권, 폭력과 퇴행적 통치로 일관했다. 누가 맘 놓고 이 위험한 노인에게 무기를 줄 수 있겠는가. 미국은 결코 우리나라를 우방으로서 포기하지 않았다. 사변이 터지자 미국은 즉각 지원에 나섰고, 미 대통령은 휴가를 반납하고 워싱턴에 귀임하면서 신속하고도 단호한 군사 조치를 강행했다. 이런 재빠른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사라졌을 것이며, 이승만 정권이 나라를 파멸했다고 보는 것이 정황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이 대통령과 집권당은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개헌을 위한 공권력 행사에 총동원했다.

사필귀정이라 했던가. 장기 집권 12년 간 민심은 이반했고, 제1공화국은 몰락했다. 이 현정사가 사실 그대로 역사에 기록됐다면 내 회고록에 답을 필요가 전혀 없는 성질이었다. 역사 왜곡이 난무하기에 좌시하기 힘들었고, 힘을 배경으로 곡필이 기승을 부리니 바른 역사를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도리라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편은 제1공화국의 곡사(曲史)에 대응하는 정사라 자부한다. 65년 전 동란의 발단으로 되돌아가 살펴보자. 1950년 6월 25일. 부슬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여명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잠들고 있을 때, 38선 북쪽에서는 검은 물체들이 조용히 남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H아워, 5시 정각 은밀하게 움직이던 이 음산한 기운은 거대한 병력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38경계선을 넘어 남쪽을 행해 밀고 내려왔다. 탱크를 앞세우고 따발총, 딱궁, 각종 야포로 중무장한 북한 침략군은 동서해역의 군함과 야크 전투기의 지원 아래 순식간에 전선을 돌파하고 단 하루 만에 서울의 코 앞 의정부까지 밀고 내려왔다. 월등한 화력에 밀린 전선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퇴각하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적에게 내주고 말았다. 무한궤도의 굉음을 울리며 지축을 흔드는 탱크에 질겁했고, 야크의 기총소사에 간 떨어졌으며, 따발총, 딱궁에 놀란 군 지휘부는 공황상태에 빠져 지휘체계가 무너졌다. 이성을 잃은 국방부, 육본, 내무부는 은은한 포성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대책 없이 허위보도만 남발했다. 북한 인민군이 서울 근교 미아리에 도달한 것은 27일. 이 날 도하 모든 신문은 국방부의 발표를 크게 싣고, 우리의 영웅무쌍한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하고 바야흐로 북진 중이라 했으며, 서부전선은 이미 38선을 넘어 황해도 도청소재지 해주에 진입했다고 대서특필했다. 전시하에 치안과 질서를 맡고 있는 헌병사령관과 치안국장은 “군과 경찰을 믿고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임하라”며 격문을 발표했다.



집을 먹고 떨고 있던 서울시민은 당국의 든든한 격문을 보고 비로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 육군본부는 몰래 한강이 남 시흥으로 옮겼으며 참모 총장 채병덕은 안전지대로 떠나면서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적 탱크가 뜨면 즉시 한강교와 철교를 폭파하라고 명했다. 27일 밤 9시 무렵에 대통령의 특별 방송이 전파를 탔다. 대통령은 “나 이승만은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 동포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고 나를 믿고 정부를 믿으라.” 했다. 이 방송으로 시민들은 만 가지 시름을 내려놓았으며 쌓았던 피난보따리를 풀고 마음을 놓았다. 대통령이 지금 방송국에서 서울을 사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대통령의 방송 말씀을 시민이 듣고 마음을 놓았을 때 대통령은 사수하겠다는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차편에 멀찌감치 대구 안전지대로 도망가고 있던 중이었다. 엉겁결에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대구까지 내뺀 것이 심했다고 봤던지 대전으로 되돌아오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이 시흥으로 빠져나간 육참총장 채병덕은 서울 육본의 후속조치를 부총장 김백일 준장에게 일임했으며, 탱크가 미아리에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자 공병감에게 한강교 폭파를 지시했다. 이 무렵 한강교 주변은 일선 쪽에서 남부여대하며 내려오는 피난민의 입소문으로 싸움이 잘못 돼가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유일한 탈출구인 한강교 쪽으로 몰려 혼란이 점점 더해가고 있던 때였다. 거기에 후퇴명령을 받은 일선부대까지 섞여 한강교 쪽은 통제 불능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공병감이 차마 폭파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자 채병덕은 펄펄 뛰고 난리가 났다. 다혈질의 채총장은 폭파를 머뭇거리던 공병감에게 고래고래 호통을 치며 명령 이행을 재촉했다. 평소에도 한 성격하는 채병덕이 두려웠던 공병감은 어쩔 수 없이 폭파 책임자인 공병학교장 엄홍섭 중령에게 폭파 명령을 하달하게 됐다. 엄홍섭 중령은 성정이 사려 깊고 상황 판단이 신중하여

일선 부대와 시민이 뒤엉켜 건너고 있는 다리를 지금 끊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실행을 미루는 행동을 보이자 채병덕에서 최창식에게 이어진 불같은 명령 계통은 명령불복종의 엄중한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전시 비상계엄하에서 이 행위는 즉결처분에 해당하는 총살감이었다. 경고를 받은 엄중령은 30분을 미루다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폭파팀에게 기폭장치의 작동을 명령했다. 이때가 28일 새벽 3시 30분, 엄중령이 명령불복종하며 버틴 30분은 수많은 장병과 피난민의 목숨을 구했고, 탱크 2대가 한강교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7시간 후였다. 수도 방어 주력 부대인 7사단장 유재홍은 후퇴명령을 받고 한강에 도달했으나 한강교 조기 폭파로 퇴로가 끊겨 그의 병력과 장비 상당수를 잃은 것에 대해 내내 분을 삭이지 못하고 그의 회고록에 기록해 뒀다.



이 한강교 조기폭파는 서울 수복 후 국민들로부터 크게 분노를 터뜨리게 한 사건이다. 정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한강교 폭파 책임을 물어 공병감, 최창식 대령을 군사 재판에 부쳐 사형 처리했다. 한강교 폭파는 비상계엄하에 내려진 전시작전명령이었다. 이 경우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즉결처분감인데,

명령권자는 눈 감아둔 채 하달 받은 수령자를 처단해서 민심을 수습하려는 꼼수 재판이었던 것이다. 장래가 촉망되는 30나이의 젊은 장교가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훗날 최창식 대령은 그의 부인이 제기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되어 고인의 원혼을 달랜 비극의 사건이었다.

6·25남침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리는 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국가정영상 있을 수 없는 거의 범죄에 해당하는 과오로 진행되었다. 백척간두에 놓인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국민을 대통령과 정부는 속임수 일변도로 서울에 가둬 놓았고, 정부를 믿으려서 민다가 갇힌 시민들은 적지 3개월 동안 상당수가 죽창으로 찢려 죽이는 인민재판에 희생됐으며, 10만의 인사가 납북되고,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 떨었다. 누구의 책임인가. 당시 서울의 민심은 1.4후퇴 때 모두 자유 대한으로 빠져나와 서울이

공동화된 것으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지금까지도 책임소재가 없는 당시를 재조명해서 이 글을 읽는 분이 책임유무를 가리게 해볼까 한다.

6·25남침 다음날, 정부는 보도를 통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25일 새벽에 북괴퇴군은 당돌하게 38선 전역으로 불법 남침을 감행하여 왔다. 자유를 희구하는 우리 2천만은 이북 괴뢰의 이러한 만행이 있을 것을 오래 전부터 예기하여 온 바로 별단 기이할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다. 우리는 우수하고 충용한 10만 국군을 가지고 있어도 세계 민주주의 평화노력에 발맞추고자 금일까지 촛시(寸時)도 참을 수 없는 통일 염원을 위한 행동을 억제하여 은인자중 하여 왔다...(중략) 우리 충용한 10만 국군은 드디어 일어섰다. 제주도에서, 지리산에서 그리고 오대산에서 번번이 적의 섬멸을 가져온 우리 국군이니 국군이 가는 곳에 반드시 완승이 있을 것을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다. 남은 문제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국 국민의 태도에 있다. 각기 배구(倍舊)의 힘을 내어 직장을 사수하라 (이하 생략)」

이 정부의 성명을 봐도 정부는 북측의 남침을 이미 알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우리는 이점에 유의해서 6·25전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날 6월 27일, 경향신문은 1면 톱으로 「찬(璨)! 아군의 용전에 괴뢰군 전선에서 패주 중」이란 대문짝만한 활자 아래 3군 일체로 패주하는 적을 맹추격, 일부는 해주시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상륙을 기도하는 소련 함선을 격침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또한 자유신문 3면에서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은 국군 정예는 용감히 적의 침공을 격퇴 중이라 하면서 「이제 군으로서는 저들 반역도배에 대하여 확고한 결의 아래 단호 응징의 태세를 취하여 각지에서 과감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니 전 국민은 우리 국군장병을 신뢰

하여 미동도 하지 말고 각자의 직장에 만반의 태세로서 군의 행동과 작전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호언장담했다.

27일 국방부는 보도를 통해 의정부 북방에서 적 전차를 격퇴하고 국군부대가 해수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적의 임진강 도하를 분해했다고 발표하면서 아군 장병은 사기충천하여 괴뢰 공비 섬멸에 용진하고 있으니 국민제위는 충용 정예한 국군을 신뢰하고 태연자약해서 각자의 직장을 고수하여 공비격퇴에 총 쫓기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이 일련의 전투에서 얻은 전과를 발표했다. 전과 내용은 적 사살 1,580명, 포로 7명, 탱크 및 장갑차 파괴 18대, 고사포 2문, 적 함정 격침 1척, 노획품으로 기관총 5정, 파발총 74정, 소총 128정, 속칭 딱궁으로 알려진 소제장총 2정이었으며 아군 피해는 전사 19명, 부상 113명이며 동해 전선에서 삼척에 상륙한 적의 연대장과 그의 부하가 귀순해왔다고 기쁨을 토하고 있었다. 우리의 맹방 미국도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미 대통령 트루먼은 휴양을 중지하고 즉각 워싱턴으로 귀임하면서 동경의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국에 무기 지원을 급속히 하라고 먼저 지령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긴급조치를 취한 다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를 요구하였으며 남한으로 쇄도하는 괴뢰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고 UP통신이 긴급 타전해왔다. 속속 도착하는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유엔을 통한 외교를 벌이는 한편, 한국에 대한 무기지원과 유엔군함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에 충분한 소식통들이었다. 이어서 27일 신문에서는 적기가 여의도와 김포 비행장에 폭격을 가해왔으나 격퇴하고 38선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중이라 보도하고 분노에 충만한 국군장병이 임진강 전선에서 총 반격 태세에 돌입했다고 대서특필했다.



25일을 기하여 38선 지대를 침범, 만행 중이니 시민 각위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동시에 군경을 절대 신뢰하여 동요치 말고 당국의 지시를 엄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고무적인

그런가하면 전시 하에 치안을 맡고 있는 책임자인 헌병 사령관 송요찬과 시경국장 김태선은 공동 포고문을 발표하여 동요하는 시민을 진정시켰으며,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육성방송을 통해 말끔하게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당시 발표한 헌병사령관과 시경국장의 합동 포고문은 이랬다.

「북한 괴뢰군은 금조(今早)

보도는 적침 3일간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알린 커뮤니케이션 상의 상황이었고, 더욱이 전파를 타고 방송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방송국에서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하는 것이라 믿었던 시대다. 대통령이 서울에 남아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지금 방송국에 있지 않은가. 하늘같은 나라님 말씀을 믿고 두 다리 쪽 뻗고 있을 때 실제 상황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국민에게 믿으라고 한 정부와 군경, 국토방위와 국민 보호를 최고의 책무로 해야 하는 대통령 이들 모두 국민을 속이고 안전지대로 도망을 쳤고, 퇴로는 끊기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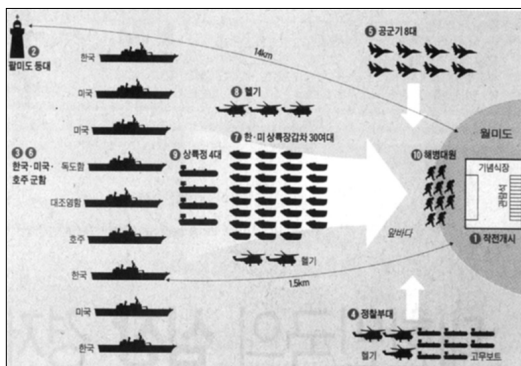
6·25사변 시점에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을 돌파하고 쳐내려오는 북한군의 총 병력은 20만 명, 전차 2개 사단 242대, 주력 전투기 야크를 포함한 전폭기 211대, 각종 야포로 중무장 되어 있었으며 전투부대의 개인 화기 또한 파발총, 딱궁으로 불리는 소련장총, 기관총 등 무장이 막강했다. 이에 비해 국군은 총 8개 사단 중 공비특별에 투입한 병력을 빼면 전투 병력은 고작 4개 사단, 통틀어도 10만 미만이였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도 전투함이라 할 수 없는 그저 선박 정도였고, 공군은 L19 20대, 일명 잠자리비행기로 불리는 L19는 경비행기로서 북한의 야크 한 대로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장병들의 개인화기라는 것이 2차 세계 대전 때의 유물, 카빈총과 M1총이 주 장비였고, 북한의 포에 상대가 되지 않는 야포, 기관총 일부가 전부였다. 한 눈에 봐도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니 승패는 뻔했다. 북한의 주력부대는 마음 놓고 경원가도(京原街道)를 따라 거침없이 남침해 내려왔고, 개성, 고랑포 방면으로 진격한 북괴군은 조공(助功)부대의 지원 아래 수도 서울을 향해 쇄도해왔다. 6·25개전 당일, 미국의 긴급 요청에 의해 유엔 긴급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 북한군의 즉각적인 남침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소련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 이에 응할 리가 없었다. 38선의 모든 전선은 일시에 무너졌고, 개전 이틀 만에 수도 서울의 외곽 미아리에 진출했다. 국방부에서 의정부 탈환, 해주 진입을 떠벌리고 있는 그 시점이다. 이 전쟁은 무기의 정도를 떠나서 애당초 항해사를 국방장관에 앉히고 일제 초급장교 출신을 군수뇌부에 인재라고 앉힌 대통령의 인사자체가 파국의 필연적 요인이었다. 소대, 중대를 지휘하던 수준의 장교를 갑자기 한 나라의 군수뇌부 자리에 앉혔으니, 감투에 걸맞은 관록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군을 지휘할 것이 아니던가. 초짜 군수뇌부는 무한궤도를 달리며 진격해오는 탱크의 굉음에 기절초풍했고 파발총, 딱궁 소리에 혼백이 하늘로 뿔었다. 전차포와 야포를 터뜨리며 달려오는 인민군을 보는 순간 갈팡질팡 정신이 없었고, 고작 '작전상 후퇴'라는 것을 명령이라고 내리고는 냅다 도망을 쳤다. 정부와 군·경 이들이 연일 떠벌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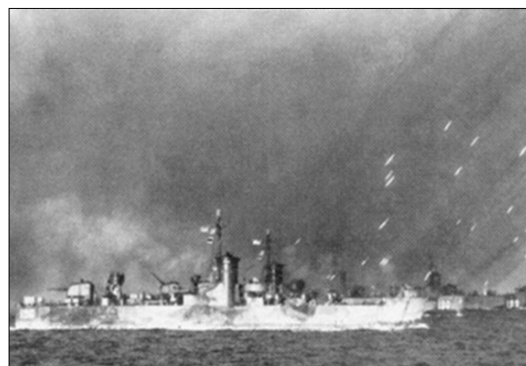
전과발표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거짓이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을 터이다. 6월 27일 서울이 함락되기 전날, 대통령과 군의 발표를 믿고 국회에서는 수도 사수를 결의했다. 국회가 결의하던 그 시간에 육군 본부는 한강이남 시흥으로 옮겼고, 탱크가 얼씬거리기만 하면 한강교를 폭파하라고 명령을 하달한 상태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가 우습게 핫바지가 되는 모습이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퇴각 요구를 북한이 불응하자 트루먼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7월 2일 미 25사단이 부산에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12일 워커 중장이 지휘하는 8군 사령부가 설치됐고, 전쟁의 요체가 되는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했다. 자격 미달의 지휘부가 우왕좌왕하다가 밀려버린 전선을 유엔군은 대구 낙동강 교두보에서 가까스로 막아냈다. 손바닥만하게 오그라든 대한민국은 이 낙동강 전선이 최후의 교두보였다. 이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생명선이었다. 우리의 국군과 유엔군은 불퇴전의 결의로 결사항전을 했고 마지막 일전만 남은 북한군은 필사적으로 돌파하려고 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혈전을 벌이면서 낙동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즈음, 세기의 명장 맥아더의 두둑한 배포가 작렬했다. 맥아더는 길게 늘어진 북한군의 긴 보급로만 차단하면 그들은 낙동강 전선에서 일시에 무너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한반도의 허리를 중간에서 끊어버리겠다는 야심찬 배짱을 맥아더는 부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 배치도



▲ 월미도에 함포 사격을 퍼붓고 있는 모습

이 작전은 간만의 차가 극심한 인천의 조류 조건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으며, 미군 수뇌부는 모두 성공 확률 1%에 도박을 건다고 보는 의견이라 반대가 극심했으나 맥아더의 결심과 확신은 단호했다. 1950년 9월 15일 군 수뇌부의 드센 반대를 극복한 전신(戰

神)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에 돌입했다. 만조(滿潮)의 이 날을 이용한 216척의 대함대는 이른 아침부터 인천 연안에 구축한 북한군의 진지를 향해 함포를 퍼붓고 또 퍼부어 진지를 쓸대밭을 만든 다음, 미 상륙군 10군단과 한국의 17연대와 해병대의 연합병력 7만 5천 명을 상륙시켰다.

한국의 운명을 가르는 이 대담한 상륙 작전을 감행하면서 맥아더는 그가 평생 쌓아올린 5성 계급의 명예를 걸었고, 비장한 결의로 기함에 앉아 전개되는 정황의 일거수일투족을 쌍안경으로 지켜보다가 작전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의 참모진을 거느리고 포연이 자욱한 격전장을 밟았다. 훗날 인천에 세워진 맥아더의 동상은 이때의 그를 기리는 우리나라 보은의 마음이 담겨있다.



▲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1950년 9월 15일 인천시가에 대한 포격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미 10군단과 국군 17연대, 해병대는 즉각 수도를 향해 진격하여 25일 서울을 탈환하고, 적침 3개월간 적이 설치한 위험 요소부터 제거한 후 28일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수도 서울을 인도했다.

인천상륙작전은 서울 시민을 몹시 들뜨게 했다. 희번덕거리는 북의 감시를 피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남쪽 소식을 몰래 듣고 있던 시민들의

입소문으로 상륙 작전이 알려졌던 것이다. 라디오를 몰래 듣다 들키면 죽창으로 몸뚱아리가 꿰뚫리는 무시무시한 인민재판이 있었지만 위험 속에서도 시민들은 남쪽 소식을 갈망했다. 9월 15일에 시작한 상륙작전은 계산상 진작에 서울에 도달했어야 하는데 소식이 없자 시민들은 속으로 애가 탔다. 유엔군의 서울탈환작전에 약간의 혼선이 빚어진 것은 알고 보니 웃지 못할 적의 초당같은 교란 작전 탓이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 쪽 전황이 급해지자 북괴는 시민을 강제동원해서 야반에 마포를 비롯한 한강변 일대에 밤새도록 빈 드럼통을 굴리는 작업을 시켰는데, 이것이 멀리서 듣기에는 엄청난 탱크부대가 강변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 미군은 혼란에 빠졌다. 탱크란 탱크는 모조리 부숴버렸다고 봤는데 탱크부대가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싶었고, 상황 파악을 하느라 여러 날을 허송했던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쪽의 지휘부와 낙동강 전선 사이에 지휘체계가 끊어지고 보급이 차단되어 북의 인민군은 지리멸렬 순식간에 무너져 퇴각의 질서마저 깨져서 일부는 지리산 등 산악으로 들어가 공비가 되었고, 그 외 대열이 흩어진 인민군은 각기 혈로를 찾아 어지럽게 북쪽을 향해 도망을 쳤다. 맥아더의 예상이 완벽하게 적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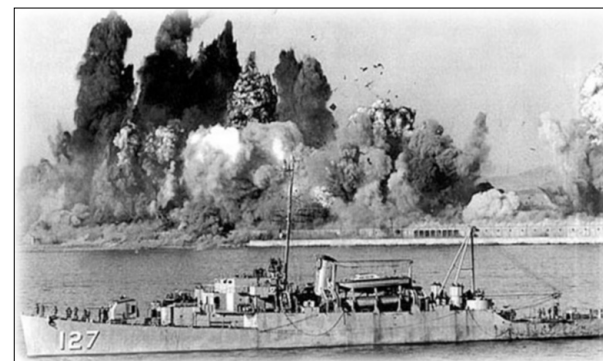
모든 전선은 무저항 북진의 반전으로 돌아섰고, 승세를 탄 아군은 조직이 무너진 북한군을 쫓으며 10월에 한만 국경 해산진에 도달했다. 장병들은 저 아래 도도하게 흐르는 압록강 유수(流水)의 자태에 겨워 누구의 소리랄 것도 없이 강으로 뛰어들어 수통 속에 압록강 물을 가득 채우며 만세를 불려 댔다. 이 감격의 순간에 통일을 의심하는 장병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팽덕회가 이끄는 백만 중공군이 애걸하는 김일성을 도와 조선족의용군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우고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팽과리를 두들기며 떼거리를 충알받이로 앞세워 야습하는 옛날 옛적 싸움에 유엔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적벽에서 조조가 오·촉에게 당하듯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뺏기고 말았다. 1·4후퇴는 표면상 팽과리 부대에게 당한 것처럼 언뜻 보이나 실은 패인은 따로 있었다. 팽덕회의 백만 중공군이 한만 국경으로 이동하는 정황을 맥아더는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부수기 위해 우리의 공군이 출동하면 소련의 미그 전투기가 난데없이 나타나 기습 공격을 하고는 겹싸게 만주로 넘어가 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한만 국경에서 벌어진 것이다.



▲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

유엔군 총 사령관 맥아더에게는 한만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엄격한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소련의 미그 전투기는 미국의 세이버와 더불어 세계 최초로 등장한 음속에 가까운 제트기로서 성능이 미 공군에 필적할 만 했으며, 공중 전 대형에서 편대장이 지휘하는 편대 사이의 대화가 분명 소련말로 포착되었으나 소련은 조선 조종사라며 잡아땀고, 미군기가 반격에 나서면 압록강 북쪽 만주로 쏜 날아가 버리니

미그의 선제공격으로 뺨만 얻어맞고 쳐다보는 맹랑한 꼴이 되고 있었다. 가끔 공중전이 벌어져서 적기를 떨어뜨려도 조종사는 낙하산을 타고 그들의 안전지대에 내리니 확증이 잡히지 않는 열 받는 싸움이었다. 이렇게 백 만 중공군은 마음 놓고 한만 점령지대에 진을 치고 상황에 따라 들락날락하며 들쭉시니 손발이 국경선에서 묶인 유엔군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형국이 되어서 전신(戰神) 맥아더로서도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이 괴상한 싸움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전쟁이 되고 있었다.



▲ 흥남항 최종 철수와 함께 부두시설과 군수물자들이 폭파되고 있다. 적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남은 물자의 전쟁 편입을 막는 작전이었다.



▲ 1950년 12월 흥남항에 몰려 철수를 기다리는 북한주민들

있는 새까만 후배가 아니던가. 트루먼은 미국에서 반쯤은 내가 갈 테니 맥 사령관도 반쯤 되

맥아더는 바다와 하늘을 확실하게 쥐고 침단 화기로 무장한 유엔군이 팽과리 부대에게 당하고 있는 이 황당한 전쟁을 지켜보면서 이런 불공정 물로는 희생만 커질 뿐 승산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적의 근거지 만주의 폭격과 중공연안봉쇄, 그리고 장개석 정부군의 활동을 끌어들이는 양동작전으로 중공을 잡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정당하고도 공정한 전쟁물이라 생각하고 기자들에게 소신을 공표했다. 본토에서 이 소식을 접한 전쟁 약골 트루먼은 기절초풍했다. 당장 맥아더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맥아더에게 긴급 회동을 타전했다.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를 먼 본토로 불러오는 것도 그렇고, 또 맥아더가 누구인가. 소련 출신의 트루먼은 맥아더의 쌍안경으로 살펴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뒤에

는 곳에서 만나자며 적당한 곳으로 웨이크섬을 지정했다. 1951년 4월 웨이크섬에서 만난 트루먼과 맥아더의 회담은 냉랭하고 심각했다. 트루먼은 만주 폭격은 중공과 소련을 끌어들이는 확전으로 보고 절대 불가의 입장을 취했고, 맥아더는 사실상 중공과 소련이 개입한 전쟁을 그들과 하고 있는 중이며, 유엔군이 침략군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이런 전쟁에 있을 수 없는 제한된 지휘권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맥아더는 유엔평화군이 침략군에게 한만 국경에서 손발이 묶인 채 당하고 있는 휘하의 장병을 보고 울분에 차 있었고, 지휘자로서의 결의가 단호했다. 팽팽하게 맞선 견해차는 결국 좁히지 못한 채 둘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고, 워싱턴에 귀환한 트루먼은 맥아더의 유엔 총사령관직을 해임했다. 1951년 4월 11일이었다.

전설의 명장 맥아더, 그는 누구인가. 1880년 장군 아버지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 1903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초기 때 이미 촉망받는 장교로 출발했으며, 1930년 대장계급에 올랐다. 1942년 서남태평양 연합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전공이 혁혁했으며, 1944년 군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명예인 별 다섯 개 원수로 승진됐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함 미주리 선상에서 일본의 항복을 정식으로 받고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끝마무리를 한 행운의 장군이기도 하다. 6·25사변 때 대한민국의 국군이 경작에 달려있을 때 최후 교두보 낙동강에서 틀어막아 적의 단말마적인 공세를 저지했고, 미군부의 극렬한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성공확률 1%에 과감히 도전해서 백척간두에 놓인 우리나라를 구해준 은인이다. 그는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 음습한 더티플레이로 전쟁에 끼어든 소련과 싸우면서 필승카드로 만주 폭격이라는 배포 큰 작전을 고집하다가 해임되었으나 맥아더의 판단이 옳았다고 나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단언한다.

당시 맥아더의 작전대로 전면전이 벌어졌다면 소련과 중공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는 필승의 구도였다. 국력의 격차도 컸을 뿐만 아니라 미국만 세계의 어느 누구도 감히 대들 수 없는 막강한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던 때였고, 그 위력은 바로 얼마 전 스탈린이 보고 놀라 자빠졌던 일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소련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 점이 필승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소련은 알고 있다. 지난 1905년 청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의화단 사건이 터졌을 때 청나라를 응징하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소련은 만주로 쳐들어갔었다. 그 결과 연합군에 굴복한 청나라는 강화조약의 배상조건을 받아들여 조약을 체결하여 모두 철수했으나 러시아만 땅 욕심을 드러내며 만주에 주저앉아 우방으로부터 미운살이 꼭 박혀있게 됐다. 이 대륙은 일제 또한 노리고 있던 터라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잦은

마찰과 갈등으로 결국 충돌이 일어났었다. 이에 일본을 우습게 본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출동하여 일제의 콧대를 꺾으려다 일본 함대와 일전이 벌어져 의외로 극동함대가 무참히 깨지는 결과가 나왔다. 러시아는 분통이 터졌다. 감히 대국에 대드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잔나비들을 혼내겠다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발틱함대를 발진시켰다. 곧 벌어질 이 해전은 누가 봐도 일본이 무참하게 당하는 게임으로 보였다. 그러나 세계정세로 보면 러시아는 미운살이 박혀 있었고, 일본에게는 우방이 있었다. 당시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는 영국은 그들이 관리 운영하는 스에즈운하의 지름길을 터주지 않았고, 주변 우방국들은 양질의 석탄 루트를 차단했다. 그 당시 함선의 동력은 석탄이었다. 양질의 석탄이 차단된 러시아의 발틱함대는 저질탄에 저열량으로 저속항진을 하면서 시커먼 연기만 요란하게 내뿜으며 아프리카 희망봉을 빙 돌아 높은 파도에 시달리면서 나갔다. 모든 보급을 견제 당했으니, 식탁 또한 부실했고, 멀미에 저영양가로 장병 모두가 힘이 쭉 빠져있었다.

반면 우방의 간접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 해군은 양질의 석탄으로 고속항진을 하면서 스미마해협에서 편안하게 이일대로(以逸待勞)하며 잠복하고 있었다. 발틱함대에 대한 정보를 따로 깔 필요도 없다. 저질탄에서 뿜어 나오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면서 “나 여기 가요”하고 발틱이 스시마해협에 들어오는 순간, 쾌속 운행하는 일본 함대의 기습함포를 맞았다. 누가 이겼겠는가. 세계 최강 발틱함대는 손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침몰했다. 여러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제정러시아는 이 해전으로 몰락하고 얼마 후, 공산정권이 출현하게 된다. 이런 주변의 여건을 미국은 쥐고 있으니 미국의 필승 구도로 단언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다.

맥아더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동경 주재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재임 중 일본에 편향적인 흠은 있었으나 그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구국의 은인임에는 틀림없다. 해임된 맥아더가 그의 오랜 해외 병영 생활을 털고 귀환하던 날, 미국은 지난 날 아이젠하워를 대하듯 워싱턴 메인스트리트에는 노병의 개선을 환영하는 인파로 메워졌고 빌딩에서 날리는 오색송이 꽃을 온 몸에 맞으며 무개차를 타고 지나갔다.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이 노병이 풍기는 매력은 아이젠하워와는 또 달랐다. 그가 특별 주문 제작한 장군 모자를 약간 비스듬하게 쓰고 군용 선글라스에 파이프를 문 풍채는 너무도 멋스러워 미국민을 매료시켰고, 이 멋진 노병의 귀환에 열광했다. 미합중국 상하 양원에서는 장군을 의사당에 초청하여 노병을 융숭하게 맞았으며 맥아더는 대인답게 해임에 관한 일체의 토를 달지 않고 생사를 넘나든 반세기의 여정을 담담하게 말한 후, 군인의 기백을 곳곳이 갈파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기백이 넘치는 노병은 명언의 긴 여운

을 의사당에 남긴 채 상하 양원의 기립 박수 속에 떠나갔다.

맥아더가 떠난 한국전쟁은 이후에도 2년간 계속되었으며, 중립국의 주선으로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은 전쟁 종료 지점을 휴전선으로 한다는 추세에 따라 남과 북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일직선상에 있는 중전의 38선과는 다르게 지금 동쪽으로 거의 금강산 밑까지 치고 올라간 휴전선은 피의 격전으로 쟁취한 영토이다.

지금의 휴전선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장병들이 산하에 뿌린 피가 얼마였는지, 6·25전쟁사에서 가장 격렬했던 백마고지의 혈전 상황을 보면서 땅의 소중함과 이 땅을 남겨준 선대의 고귀한 희생을 알리고자 한다. 백마고지는 강원도 철원의 서북방에 있는 해발 395m에 불과한 낮은 고지였으나 철의 삼각지대로 알려진 전략 요충지였다. 또한 험준한 산악지형의 북한에서 황해도 평야와 더불어 흔치 않은 철원 평야가 드넓게 펼쳐있는 곡창지대였다.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1952년 10월 3일부터 13일간 한국의 제9사단과 중공군의 제38군은 사생결단의 혈전을 벌였으며, 중공군이 쓰는 집중포화와 인해전술에 맞서 유엔군은 주폭기 B29 5대, B26 폭격기 52대, 그 외에 전폭기 767대가 출격하여 무려 60만 톤의 폭탄을 적진에 떨어뜨리고 29,954발의 포탄 세례를 퍼붓고, 피아간 20회에 걸쳐 주인이 바뀌는 처절한 쟁탈전이 벌어졌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은 1만 5천명이 넘는 장졸이 전사했으며, 아군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입어 백마고지의 계곡을 붉게 물들었다.

오늘 날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철원쌀은 이런 고귀한 희생으로부터 얻은 풍요다.

그 외에도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피아간에 한 치의 땅도 더 차지하려는 접전이 여러 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동부 쪽의 실지 회복을 위해 떼거리 인해전술을 기도했으나 이에 맞선 유엔군과 아국군의 결의는 단호했고, 제공권과 제해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을 두들겼다. 유엔군의 엄청난 후방 지원과는 달리 하늘과 바다를 뺀 중공군은 야음을 틈타 이동하고 극히 제한된 보급으로 인명 피해가 격심하였으며, 지휘관들의 전의가 상실되어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서명하고 남침 3년 1개월 만에 전쟁이 종료되었다.

6·25사변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다. 도시는 황폐하고 산하는 초토화되어 아름다웠던 우리의 금수강산 어디에도 온전한 곳이 없이 포탄에 활궤어 상처투성이였다. 하루하루를 일터에 충실했던 백성들은 생활터전이 불탔고, 백만의 인명 피해와 십만의 생이별이 났다. 왜 이런 참담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생겨났는가. 따져보니, 국정운영을 잘못된 인재였다.

역사는 유구하거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위를 캐서 역사의 경구로 삼아야겠다.

나는 첫 머리에 남과 북의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었다. 또한 전쟁이 났으면 절대로 질 수 없는 통일로 가는 싸움이라고 단언했다. 우리의 통수권자가 부여받은 국방, 국민보호의 책무에 충실했다면 6·25는 통일조국의 기회였다고 탄식했다. 왜 그렇게 보는지 규명해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통치권자의 선택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엄중한 권리였는지 그리고 잘못된 선택에서 돌아오는 책임을 깨닫고 종래에는 이로 인해 조국과 겨레에게 고통과 희생이 온다는 경종을 울리고 싶다. 분단된 한반도는 일제의 항복과 동시에 남북이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다. 아니, 북측의 소련에 비해 월등히 강성한 미국을 배경으로 출발했으니, 우리 남쪽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던 것이 6·25때 뚜정을 열어보니 우리는 북한에 비해 한심한 군사력으로 나타났다. 동서로 이어진 전선에서 모두 맥도 쓰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개전 3일 만에 우리의 심장 수도를 뺏기고 말았다. 당해놓고 보니 당연한 결과였다. 어째서인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마치 이 나라를 아주 망조가 들게 하려는 통치 같아 보였다.

먼저 남과 북 두 정권을 운영하는 통치권자의 입지(立地)를 비교해 보자. 해방과 함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에 앞서 서둘러 귀국했다. 본국으로 들어오기 전 동경부터 먼저 들러 아세아의 절대 강자 아세아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맥아더부터 찾아갔다. 둘 사이에 무슨 언질이 오갔는지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져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드러나 있다. 이 박사가 동경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군정을 지배하는 하지 중장이 맥아더의 부름을 받고 급히 동경으로 날아가 3인이 자리를 함께 했고, 사흘 만에 귀임하면서 이 박사를 특별기편에 모셔왔다.

나중에 대권을 쥔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행사에 맥아더를 초청해서 옆에 상석에 앉히는 극진한 대접을 했다. 은사인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애제자인 이 대통령을 찾아왔을 때 매물차게 대접한 그의 성정으로 보면 극히 보기 드문 특례였다. 그러므로 둘의 관계는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의 동지로서 매우 돈독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락파락하는 하지 중장도 당연히 홀대할 수 없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지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 이승만과 맥아더



▲ 하지와 이승만

반면, 북쪽의 김일성은 어떤가. ‘치스티아코프’ 소장이 북한 주둔 사령관으로 평양에 입성할 때 서열 맨 끝에 초급 위관 장교로 그를 데리고 들어왔다. 소련은 진작에 이북을 위성국권내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진주해왔으므로 정치 사령부도 두는 이원화 체제였으며, 김일성은 이 속에서 충충시하 아주 볼품없는 입지였다. 치스티아코프와 로마넨코 소장이 김일성을 부르는 호칭은 ‘따와리치킴’이었다. 우리말로 치면 “어이~ 김 대위” 정도다. 저 위에 까마득한 투 스타 장군이 들어서 번갈아 그를 부려 먹으니 위관장교 김일성 대위는 저 밑에서 두 손 마주잡고 읊조리는 매우 피곤한 신세였음이 뻔하다.

두 사령부의 직제에 따라 준장, 대령, 중령, 소령의 까마득한 위계질서를 밟아 올라가느라 김일성 대위의 처량한 신세가 안 봐도 딱이다. 소련 장교들은 또한 하나같이 콧대가 높았으니 오죽했겠나 싶다. 하지만 김일성은 만 가지 수모를 참았다. 그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내놓고 사령부를 찾아갔다. 최종 결정권자인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 시베리아 철도를 탔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김일성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시베리아 칼바람을 마다않고 밤낮을 달려 모스크바에 갔다. 스탈린에게 남한을 빼앗아 통일 한반도를 바칠 것이니 도와 달라고 읊소했다. 전후 사정을 짐작컨대 스탈린은 처음에는 미국을 의식하고 꿈 깨라고 쫓아 보낸 것 같다. 스탈린의 영토에 대한 탐욕은 무한이었지만 그는 덤덤히 무는 성질이 아니다. 음습하고 세밀한 성격으로 이 구미가 당기는 미끼를 요리조리 재본다. 김일성은 그가 깔아놓은 정보망을 통해 남쪽의 허술한 방어를 꿰뚫어보고 자신 있다며 큰소리치지만 스탈린은 꼭 참고 그의 심복 치스티아코프와 로마넨코에게 이중복선을 깔고 지령을 보내 은밀히 조사 확인하는 수순을 밟는다. 소련 군대밥을 먹어 본 김일성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는 충충의 두 사령부 계단이 오르기 괴롭고 할 것이 아니었지만 두 사령관을 찾아가 스탈린에게

보고를 잘해달라고 조아린다. 공산국가는 과오에 대한 추궁이 서릿발 같다. 두 사령관은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보고서를 꾸미느라 대남 정보망을 총동원했고, 김일성의 말대로 남한의 군대라는 것이 군화끈을 다 풀어놓고 음주파티로 태평세월하는 것이 정보로 확인되자 스탈린에게 비로소 사실 보고를 한 것이 내막이라고 본다. 이렇게 김일성은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시베리아 칼바람을 맞고 왔다갔다한 보람이 있어 그는 탱크와 야포, 파발총, 팍궁 등 막강한 무기를 얻었으며, 거기에 더해 전투기 야크와 전함, 잠수함으로 육해공군을 무장하기에 성공한다. 시베리아 철도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김일성은 감격했을 것이다.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으로 차창 밖 광대무변한 허허벌판에 대고 크게 소리 한번 질러보고 싶은 벅찬 기분이었을 것이다. 북한에 돌아온 김일성은 바빴다. 전선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탱크의 조작과 전술전개훈련, 야포의 조준 요령과 타격 훈련, 속속 쏟아져 들어오는 군수 물자의 숙지교육으로 북한 전역은 병영화 되었으며 천지가 요란했다. 탱크의 무한궤도가 이동하여 그 굉음은 지축을 흔들었다. 이런 난리가 이북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몰랐다면 중대한 직무유기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개교 이래 가장 우수한 장교를 배출한 것이 육사8기라고 했다. 6·25 당시 이들의 계급은 중위급. 육사8기의 정보장교들은 이북의 남침동향을 포착했고, 상부에 숨 가쁘게 보고했다. 그러나 수뇌부에 의해 묵살됐고, 남침 직전에 지휘관을 바꾸고 전선의 병력 1/3을 휴가 보내버렸으며, 음주파티로 날을 섰다. 사변이 터진 6월 25일 서울 도심에는 스피커를 단 헌병짚차와 스리쿼터가 시내를 질주하며 숨 가쁜 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휴가 장병은 즉시 원대 복귀하라!”, “휴가 장병은 즉시 원대 복귀하라!” 시민들은 긴장했고, 불안한 마음에 보파리들을 쏘다. 바로 이 때, 정부의 대국민 성명이 발표됐다. 정부는 북한의 남침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영용한 국군이 적을 격퇴하고 있으니 생업에 충실하고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이다. 사변 직전 국방부는 북한이 도발해 온 크고 작은 전투에서 1년간의 전과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적 사살 15,000명,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도 잡았다고 했다. 또 북한에서 전투기 야크를 몰고 조종사가 귀순해 오기도 했고,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팔로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끝이들게끔 돼있는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과 정부는 국방과 국민보호의 중대한 책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만약 대통령이 국방의 책무에 충실했다면 한반도의 사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졌기에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분석을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부의 무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다.

먼저 당시 남과 북 두 통치권자의 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70대, 김일성

은 30대. 그 시절의 관혼제례로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뻘이다. 관록과 대외적인 위상에서 김일성은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김일성이 두 손 마주잡고 조아리는 상전 치스티아코프나 로마넨코도 이승만과 교분을 나누고 있는 맥아더 앞에서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이 대통령의 조건이 월등하다. 대통령이 국토방위의 막중한 책무에 충실했다면 속속 올라오는 남침 정보와 북측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야했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처했어야 했다. 남침 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그의 친밀한 맥아더 사령부에 브리핑해서 그에 상응하는 전력 보강을 하는 것이 책무요, 도리였다. 더욱이 그때 우리나라에는 미 군사고문단이 주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38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상찮은 동향을 보여주고 다급한 사정을 정성껏 인식시켜 주었다면 그들을 통해서도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맥아더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다. 반공을 넘어 타도 수준이다. 미국 군부를 움직이고 있는 마셜, 브래들리, 헐 대장 그리고 영향력이 강한 아이젠하워 원수 등은 그의 후배나 애제자들이었다. 맥아더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화요, 군인의 롤 모델이었고 모두 그를 우러러 외경하는 경지였다. 인천상륙작전에서 군수뇌부가 걱정하는 1%의 성공률을 관철할 만큼 맥아더의 힘은 막강했다. 맥아더를 붙들고 전후사정을 잘 설득했다면 그의 성정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한국 방위에 나섰을 것이 틀림없다. 머리를 조아리며 스탈린에게 애걸복걸하는 김일성의 처량한 모습에 비하면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맥아더는 한국전을 이기기 위해 그 이름도 빛난 유엔군 총사령관직도 서슴없이 내놓고 대통령과 맞서지 않았던가. 미국의 원조가 있었다면 풍요한 군수 물자와 무기의 우수성은 미국이 소련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으니,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면 이 싸움은 어느 쪽이 이겼겠는가. 이런 군사 대비만 했다면 치스티아코프와 로마넨코의 정보망에 걸려든 여러 상황은 비관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며, 스탈린에게는 남침 불가로 품신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이 통치의 최고 본분인 국토방위에 주력했다면 6·25사변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무모하게 도발해왔다면 필승의 조건으로 대한민국은 통일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 군수물자의 질량은 소련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 이미 나타났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예방 실패는 얼마 후, 임시 수도 부산의 국회 출석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또 다른 이유가 밝혀진다. 이 문제는 뒤에 1950년 9월 6일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국회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6.25 사변 때 국방부와 내무부는 연일 우리의 영웅무쌍한 국군은 북괴를 격파하고 남침 범죄를 철저히 응징 중이라 허풍을 쳤었다. 그러나 실제 전투에서 아군은 순식간에 밀려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반민특위가 활동할 때, 단죄의 대상이 되는 매국 친일 분자들

을 권력의 핵심 자리에 앉힌 이 대통령은 국방의 기술, 치안의 기술, 반공의 기술이 필요해서 인재를 쓴 것이라 강변했었다. 이 인재라는 자들이 사변 당시 국토방위와 치안의 핵심 요직에 있었다. 이들을 요직에 등용해서 국가 위난케 한 것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침략군에게 밀려 일패도지 당하는 상황에서 전쟁약골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휴양 중이었다. 그가 급보를 받고 즉시 워싱턴에 귀임하면서 여러 긴급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것은 우리에게 천행이었다. 위약했던 트루먼은 미국의 우방에 대한 소련의 강탈행위에 분노했고, 미합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트루먼은 즉시 국가안전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맥아더 사령부에 무기 지원을 훈령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유엔 우방의 결속을 도모했다. 미군 부대가 즉시 전선으로 출정했고, 일주일 만에 미8군 사령부가 부산에 설치됐다. 실로 전광석화와도 같은 신속한 조치였다. 이 일련의 통수권행사를 발동한 트루먼의 행동으로 봤을 때 북과 소련의 남침 의도를 체계적으로 설득, 이해시켰다면 트루먼은 한국을 수호하는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 분명하다. 트루먼의 이런 단호한 대응조치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개전 한 달도 못돼 지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적반하장이라고 지금 북한이 미국에 이를 갈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연전연승, 탄력을 받은 북한 인민군은 미군과 유엔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와 경상남도만한 땅 덩어리로 오그라들어 낙동강 교두보에서 악전고투했다. 더 밀리면 끝장이고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이 최후의 교두보는 피아간의 혈전으로 낙동강을 붉게 물들이는 참상이었다. 이런 국난의 위기 상황 속에 피난 수도 부산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기가 막힌 정치가 연출되고 있었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과 그의 추종세력이 부린 정신병적 권타를 보게 되면 아마도 상당수의 이승만 추종세력은 낙담을 할 것이다. 화가 치밀고, 더러는 이 참담한 짓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제1공화국의 역사는 국회사를 주 자료로 했으며, 국회사는 입법부의 국사를 기록한 사초다. 국회의 회의록에 기록된 국회사를 보면 이승만 정권이 불법, 반민주적 일탈이 너무 방대하여 극히 일부 요점만 추려서 연대별로 간추렸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것만으로도 이승만 정권의 전모를 미루어 보기에 충분할 것이다. 또한 국회사는 고도의 기술문명에 사는 지금과는 달라 국회의원들의 의회 발언을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속기사에 의해 엄격하게 기록한 것으로서 의원 중에 품위에 맞지 않는 발언이나 욕설이 튀어나와도 그대로 사초에 남게 된다. 사변 초기에 혼란 중에 속기사가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국회사간때 기록이 끊어져 있다는 것을 참고로 부연해둔다. 그러므로 국회사는 6·25사변을 모르

고 자란 세대에게는 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되며, 이로서 아마도 상당한 신세대는 역사의 자객들이 난도질하는 불순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1950년 9월 6일 임시수도 부산에 천도하던 날, 국회에서는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규갑의원 외 53명이 제출한 결의안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6·25사변은 실로 우리 국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과 민주주의 옹호를 위한 역사적 공통 투쟁이다. 우리 국회는 광명한 승리를 위해 일체의 의견대립을 지양하고 오늘까지 정부와 협심 노력하여 왔고, 또한 장차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충용무쌍한 우리 국군, 경찰의 분전과 세계 민주국가의 총체적 지원과 우리 국군의 공고한 단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대한 실책을 거듭하여 왔다. 더욱이 근래에 이르러 일부 장

관의 위헌적 독단이 자행되고 군사 책임자의 무위무책과 무도한 전횡으로 광란희락의 구국책이 위태롭게 되고 민주헌정의 대도가 또한 위난하게 되어 국회는 안연히 좌시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일대 개혁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는 요지였다.

위헌적 독단으로 거론된 장관은 국방장관 신성모와 내무장관 조병옥으로서 위헌적 독단 행위도 구체적으로 지목되었다. ‘국방장관 신성모는 국방의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북괴의 불법 남침을 예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남침 전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장병을 외출시켜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하였고, 6월 27일 허위로 의정부 탈환을 선전하고 한강교를 절단하여 수많은 애국동포의 피난길을 막았고...(중략)...’



▲ 한국전쟁 당시 경남도청 무덕전 건물을 임시의사당으로 사용



▲ 가운데가 한국전쟁 초기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신성모. 그의 군 경력은 외항선 선장 외에는 전혀 없었다. 왼쪽이 김활란 이대 총장, 오른쪽이 백선엽 장군. 이 두 사람은 국내외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친일파였다.

국가 존망의 결전단계에서 전선의 여러 용장을 아무 이유 없이 후방으로 인퇴케 한 망동을 자행하여 장병의 사기와 국민의 신망을 저해하였으므로 국가민족의 평구를 위하여 즉시 문책파면을 요청하고 내무장관은 8월 29일 야반에 국회를 비난하는 문서를 국회의장과 수 십명의 의원에게 시위적으로 전달하고, 동 30일 도하 각 신문에 공포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따라서 민주헌정의 상도를 이탈한 내무장관의 파면을 국회결의로 요구하는 사안이었다...(이하 중략)

본건은 1950년 9월 6일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28명, 가 106명, 부 1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진 의회에 출석하여 위압적이며 혼계조의 발언을 통해 초법적인 무례로 국회를 질타한 다음 도도하게 의사당을 떠났다.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긴급한 문제는 전쟁을 이기는 것이다. 국회로서 할 일이 많은데 헌법위원, 탄핵위원을 내어서 정부와 싸우면 좋을 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한 것이다. 우리도 양병(養兵)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외국에서 군벌을 만든다던지, ‘파시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등의 방해로 도리가 없었다.”는 답변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애당초 국무위원을 부르는 결의 자체가 불쾌했고 발언 내내 화난 심기를 드러냈으며 부정, 거부, 혼계 일변도의 태도였다. 계속되는 대통령의 발언 중에 백미는 이랬다.

“국무총리 임명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은 작난을 치지 아니하고, 정당 색채도 없고, 청백하며, 사심 없이 정당하게 일할 분이 있으면 임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람으로 함태영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이에 대해 조광섭, 박영출, 성득환, 정남국, 김광섭 의원은 국회의 의도와 고충을 역설하고 재고를 요청했었다. 이에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여러 의원의 발언에 화가 난 대통령은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나라를 찾자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국회가



▲ 1951년 7월 부산 피란 시절 전황을 듣는 이승만(제일 왼쪽) 이 자리에 없는 국회의원들은 서울을 빠져나오지 못해 대부분 남북당했다.

있는 것이지 의원을 위해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 질타한 다음 “국회에서 떠들기만 하면 어떻게 할 테요! 인민을 안도시키도록 하라. 안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선동시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바쁜 사람인데 자주 불러내면 결코 나랏일에 좋을 것이 없는 것” 일갈해놓고 서당 훈장이 서생 훈계하듯 국회를 놀려놓고서 유유히 의사당을 빠져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회쯤은 수하로 보는 터여서 매사가 이런 식이었고, 따라서 민의는 단절되고 대통령의 아집만이 통하는 세상이었다. 그의 자세는 민의의 전당 앞에 오만방자했고, 나라가 이 지경으로 되게 한 책임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 날 대통령의 발언 중에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했다. 다만 우방이 우려하는 바를 직시해보지 않고 사시로 보기엔 우방의 진의를 비뚤어지게 판단한 것이 문제였다. 그의 통치 스타일을 보는 우방 지도자들의 시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과 우방이 보는 눈은 우리와 같다고 본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 이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씩 암살되었고, 속 시원한 수사는 없고, 사건 모두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 용두사미로 끝났고, 범인들은 편안했다. 이 정권에 반하는 인사는 빨갱이로 몰려 곤욕을 당해야 했고 국회의 결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김없이 불한당 패거리가 의사당에 쳐들어가 시중잡배가 내뿜는 욕설과 폭언으로 난동을 부렸으며, 반대 의원의 실명을 손가락질해서 망신을 주었다. 나라 팔아먹은 매국 친일파를 권력 중심에 앉혀 독립운동을 구박했고, 국민은 공권력의 치도곤 앞에 무소불위로 휘둘렸다. 이 정권의 전횡은 빙산의 일각만 들춘 것이지만 이것으로도 우방지도자가 보는 눈에 그는 성군이였을까? 폭군이였을까? 뻔하다.

이 정권에게 군사 원조하는 것은 파시스트 군벌 건설에 일조하는 것으로 봤을 테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통제 불능의 위험인물로 본 것이 틀림없으며 또한 이것이 정당한 시각이다. 그러니 이 고집불통 정권에게 무기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우방의 고충이었을 것이 불을 보듯 흰하게 보인다.

군 정보 기능과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나라가 위급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우방은 이 대통령의 파시스트 기질을 우려하여 무기 원조를 꺼리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 그랬으면 대승적 통치차원에서 선정을 베풀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습으로 자중했어야 하는 것을 이 대통령은 추호도 그런 기색이 없었다. 존재감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조무래기 김일성 대위가 간도 쓸개도 다 버리고 스탈린에게 매달려 남침무기를 얻어오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카빈총, M1총에 주저앉아 고립된 것은 전적으로 이승만 통치 스타일과 그의 성정 탓이었다. 이런 통치로 국민은 전장에 내몰려야했으며 가옥은 불타고, 나라 살림이 망가

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참상을 겪게 했다. 이는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우리의 업보이기도 하다. 6·25사변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책임도 수반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겨주었다. 이승만 정권의 전시 통치는 도를 넘어섰다.

1951년 초, 1·4후퇴로 부산으로 천도한 국회는 임시의사당 부산극장에서 본 회의가 오랜만에 속개되었다. 이 날의 주제는 국민방위군 의혹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사건이었다. 당시 이 두 사건은 온 국민의 치를 떨게 했고 민심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국회는 이 사건을 규명하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회의였다. 국민방위군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11일 공포한 방위군 설치법에 의하여 제2국민병 해당자인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장정으로 조직된 군대로서 공산 침략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사건은 1951년 1월 후퇴작전에 따라 방위군을 집단 이송할 때, 군 간부들이 거액의 국고금과 장정들에게 공급되는 물자를 부정 착복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천 여 명이 굶어 죽고, 추위에 동사케한 처참한 사건이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의 분노가 폭발되어 수습에 나선 정부에 의해 군 간부가 군법에 회임되었고 총 사령관 김윤근과 부사령관 윤익현 외에 5명을 처형해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한 것으로서 정부와도 관련되는 사건이었다.

거창 양민 학살사건은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이 경남 거창군에서 발생한 내막을 국회에 제기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며, 군과 경찰이 목불인전의 만행을 공비토벌로 은폐하려 하자 신중목 의원이 국회에 조사를 제기한 안건이었다. 국회는 즉각 ‘거창 양민학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그 진상을 직접 조사하되 조사단 구성은 각 교섭단체별로 선임토록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조사활동에 들어간 사안이었다. 국회 조사단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각 행정부처 조사관과 함께 4월 3일 사건 현장인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를 향해 거창 경찰서로 출발하던 도중 공비의 습격을 받고 현장 조사를 포기하고 되돌아온 상황이었다. 조사단이 국회로 복귀한 직후, 이 공비 습격은 공비를 가장한 군부대의 습격이었으며 군 당국의 계획적인 작난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런 정부 행태는 국회는 물론, 온 국민의 격앙된 비난을 받았고, 재수사를 통해 파악한 현장 피해에 대해서도 국방부 측과 기타 증인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국방부 측은 187명 사망, 내무부는 294명 사망이라 발표했으나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이 파악한 피해 상황은 민가 700여 호가 소실되고 537명 주민 전체에 대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살이었다는 내용이었으며, 국회현지조사단에게 공비로 가장하고 사격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공식 조사 확인은 어려웠고, 사건은 보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계속 터지는 대형사건으로 국회에서 정치 문제화되자 결국 1951년 5월 5일 신성모 국방, 조병옥 내무, 김준열 법무장관이 인책사퇴하는 정계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은인자중하던 이시영 부통령도 이승만 정권의 횡포에 더는 참지 못하고 통절의 고별사를 발표한 후, 관복을 벗고 정계를 떠나고 말았다.



▲ 피난살이 중에도 독립투사의 면모를 잃지 않은 이시영 부통령. 1951년 5월 9일 이승만 정권의 전횡을 비판하며 '국민에게 전하는 글'을 남긴 후 사임한다.

국민 방위군 사건에는 원내 친여 세력인 신정 동지회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생겨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렇잖아도 유동적인 국회 내의 세력 분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이때까지 정당정치는 시기상조라며 초당적 존재로 군림하던 이 대통령은 민심 이반에 따른 지지 세력의 불확실성을 절감하고, 여당창당을 서두르게 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노리는 자유당의 출현 순간이다.

이 무렵, 전선은 피아간에 한 달이 넘는 공방전 끝에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하고 38선에 도달한 때였다. 유엔군은 38선을 돌파하느냐는 문제로 쟁점화 되고 있었고, 유엔총회에서는 '한국전의 즉시 정전을 위한 5개의 원칙'이 채택되어 미 군부에서는 리지웨이 주한 미8군 사령관에게 '38선 정지' 명령을 하달한 상태였다. 바로 이때, 통일의 꿈이 틀어질 것 같은 흐름을 느낀 이승만의 유아독존 고집이 처음으로 제대로 빛을 냈다.

2월 11일 대통령의 불같은 진격 명령을 받은 국군은 독자적으로 38선을 뛰어 넘어 강원도 양양에 진격하여 유엔을 경악케 했다. 이 시점은 전선을 시찰한 맥아더 원수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한 때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성명을 발표한 3월 24일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맥아더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끝내 의견 불일치로 동 4월 11일 맥아더의 해임으로 귀결되는 미묘한 시기였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 진격 명령으로 상당한 희생은 있었지만 속초, 양양 등 양질의 어항과 철원 평야를 차지하고 국토를 넓힌 소중한 결과를 얻었다.

조국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격랑 속에 휘몰아치고 있을 때, 정가에서는 심상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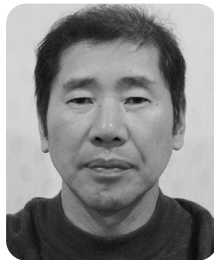
소식이 들어갔다. 1951년 8월 20일 국회 제47차 본 회의에서 서이환 의원으로부터 '故 송진우 살해범 한현우와 故 백범 김구 살해범 안두희가 백주대낮에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따지기 위해 관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 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가결 채택되었다. 서이환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송진우 살해범 한현우는 거리를 마음대로 다니는 것은 물론 내무장관실을 무상출입하고 있으며, 김구 살해범 안두희는 국방부 모국에 보직 받고 대령으로 특진된 계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답변에 나선 법무차관 김윤근, 내무차관 홍범희, 국방차관 김일환은 이에 대해 하나같이 교언으로 얼버무리고 모르쇠로 잡아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분개한 장택상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 "법무차관은 범인 수배중이라 하고, 내무차관은 범인이 백주대낮에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하니 분명 둘 중에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안두희의 출옥을 전혀 모른다고 후안무치하게 답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영원한 수치이며 칼을 물고 죽어 마땅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 살해범 안두희는 저격 당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지나가던 헌병 순찰차에 의해 구인되고 헌병 사령부에 잡혀 갔으나 부사령관실 소파에 편안하게 폭 파묻혀 커피를 즐기고 있었으며, 당대의 지도자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의 살해흉악범들이 감방에서 고생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봐야 옳은가. 글을 읽는 분에게 판단의 여백을 남겨 놓기로 하겠다.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살인범들을 하수인으로 써먹었으면 뒤탈 없이 깨끗이 희생양으로 보내버렸으면 말썽이 덜할 것을 흉악범에게 가당찮은 의리라는 것을 베풀다가 세인의 의혹만 분분하게 키웠던 그 때는 그런 날강도 천국이였다.

(다음 호에 계속)



파주 지역의 독립운동



이 철 민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 지부장

1. 경술국치와 의병활동

1910년 일제에 의해 나라가 강탈당하자 전국 각지에서는 민족적 자존심에 호소하며 그 분함과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는 순국지사들이 속출하였고, 일제의 국권침탈에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파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종 때의 내시부에서 왕과 왕비의 명령을 수행하는 승전색(承傳色)을 지냈던 반학영(潘學榮)은 1905년 일제가 무력으로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이에 항의하여 사임하고 파주 교하의 심학산 언저리에 은둔하고 있었다.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자 원통한 마음을 누르지 못했던 반학영(潘學榮)은 남몰래 순국할 뜻을 써서 품안에 간직하고 작은아버지를 찾아가 이별을 고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하 삼다리에서 자결하였다. 이처럼 일제의 강점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헌병 분소나 경찰주재소등을 습격하거나 중국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파주에서는 송금중(1913년 7년 징역), 김은중(1913년, 7년 선고), 윤치대(1913년, 5

년 선고), 이용현(1913년, 7년 선고) 김윤중(1913년, 7년 선고), 이대운(1914년, 2년 5개월 선고), 정홍준(교수형) 등이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과 함께 옥고를 치루거나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장명산 사건은 파주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이었다.

일제의 국권침탈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해 있던 때에 파주 교하군에 초대군수가 발령되었다.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지경에 친일본자로 교하에 부임하는 윤기섭 군수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 교하 군민들은 새로 부임하는 군수를 화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대한제국 당시 정부의 재무(財務)를 총괄하던 탁지부(度支部)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김사열은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고향인 야동리에 돌아와 있었다. 김사열은 1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송헌섭의 집에 모여서 신임군수 윤기섭을 화형에 처할 것을 결의하고 “집집마다 1명씩 장작 한 개 썬을 가지고 장명산으로 집합하라”는 사발통문을 돌렸다. 장명산은 교하와 공릉천 사이에 있는 작은 산으로 수만 명의 교하군민이 장명산에 집결하여 각자 가지고 온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운 다음 신임군수를 화형에 처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미리 탐지한 일제 경찰들이 군민들에게 충격을 가하며 공격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유용 등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끌려간 뒤 심한 고초를 겪었다. 장명산 사건은 나라를 빼앗긴 울분에 모여든 파주 군민들의 대대적인 항일봉기였다.

2. 3.1운동의 전개과정

1) 교하지역 시위

파주의 3.1 운동은 1919년 3월 10일 와석면 교하리(현 교하동)의 공립 보통학교에서의 시위를 시작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3월 27일 청석면 시위로 이어졌다.

1919년 3월 10일 와석면 교하리(현 교하읍 교하리) 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는 학생 100여 명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중심 인물은 구세군의 임명애로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여기에 따라 학생들도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3월 25일에는 김수덕, 김선명 등이 임명애의 집에서 등사판으로 격문을 인쇄하였는데 격

문의 원고는 구세군의 염규호가 쓴 것으로 “오는 28일 동리(洞里) 산으로 일동은 모여라. 집합치 않는 자의 집에는 방화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격문은 약 60장을 인쇄하여 주로 김창실 등이 와동리, 당하리 등지에 배부하였다. 3월 26일에는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등이 그 부근에서 모여든 군중 약 700명을 인솔하고 면사무소로 시위 행진하여 면사무소 유리창을 깨트리고 면서기 2명에게 휴무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위 행렬이 주재소로 향하자 경비를 하던 헌병이 발포하여 당하리에 사는 최홍주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시위를 주동했던 임명애,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등은 모두 검거되어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을 언도 받았다.

2) 봉일천 공릉장터 시위

교하 청석면 시위가 벌어지던 3월 27일, 광탄면 발랑리에서는 동네사람 수백 명이 면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면 사무소앞 시위는 28일에도 계속 전개되었는데, 이후 시위 군중들은 조리면 봉일천까지 행진하여 봉일천 장날(공릉장)에 모인 군중들과 합세하여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날 시위로 발랑리에 사는 조무쇠, 이인옥, 남동민, 정천화, 정갑석, 이기하, 정봉화, 강홍문 등 8명이 체포되어 각각 징역 8월의 형을 받았다. 광탄면의 시위는 마을 주민이 자연발생적으로 세를 형성하여 진행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들의 대다수인 농민들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주 3.1 운동의 가장 대규모 시위는 3월 28일에 전개된 봉일천 공릉 장날의 만세운동이다. 봉일천 장날의 만세운동은 심상각의 주도하에 김웅권, 권중환, 심의봉, 이근영, 이종구, 유영 등이 중심이 되어 광탄면 발랑리에 본부를 두고 대표 19명이 논의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파주는 물론 고양의 일부까지 포함한 대규모의 시위를 3월 28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거사 당일인 28일 광탄면 등지에서 2,000여 명의 군중이 공릉장으로 몰려와 그 곳에 있던 1,000여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만세운동 중 시위 군중들이 봉일천 헌병 주재소를 공격하자 일본 헌병들이 시위대를 향하여 무차별 발포하여, 광탄면에 사는 박원선 등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날의 시위는 파주에서 전개된 3.1운동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한 양태를 보여준 것이다.



▲ 봉일천 공릉장터 3.1운동 기념비

이처럼 파주의 3.1운동은 전국적인 양상과 맞물려 진행되었으나, 다른 지방에 못지않게 치열하게 전개되어 많은 피검자와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 중에 한 곳이다.

당시 인명이 확인된 피검자는 21명으로, 사망자는 10명에 이르며 이들의 우국충정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 쉬고 있다.

3. 파주의 항일 독립운동가

1) 반학영(潘學榮) ?~1910. 순국지사.

고종 때의 내시(內侍)로서 승전색(承傳色)을 지내다가 1905년 일제가 무력으로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이에 항의하여 사임하고 파주군 교하에 은거하였다.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자 통분을 누르지 못하여 남몰래 순국할 뜻을 써서 품안에 간직하고 작은아버지를 찾아가 이별을 고하고 돌아오다가 교하 삼다리에서 품 안에 간직하였던 글을 펼쳐놓고 “내시와 외관(外官)이 천함과 귀함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 역시 임금의 은혜를 받아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임금이 하정(下庭)하였으니 내 어찌 감

3) 파주 3.1운동의 특징

1919년 3월과 4월에 걸쳐 파주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의 전개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학생, 지식인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운동이 시작되어 이후부터는 농민 등 기층세력들이 운동의 전면에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운동의 양상이 처음엔 잠시 만세시위 등의 평화적 형태를 취했으나, 급격하게 일제 식민 지배기구를 공격하는 적극적인 투쟁으로 전화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장날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이용해 조직적인 시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타 지역의 원정 시위대가 참여했다는 점 등이다.

히 따뜻한 방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로에서 할복 자결하였다.

이후 반학영(潘學榮)의 죽음을 슬퍼하던 동료들이 1930년경 그의 묘소에 비문을 새기고 고인의 뜻을 추모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 추서.



2) 박찬익(朴贊翊) 1884~1949.

1907년 초 비밀결사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1910년 나라를 일제에 강점당하자 만주로 망명하여 북간도에서 한국인학교를 설치하고 애국과 자립 사상을 고취했다. 그 후 상해로 건너가 신규식과 함께 1912년 7월에 동제사를 조직하여 박은식을 총재로 추대하였으며, 신채호·김규식·이광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중심기구로 발전시켜 나갔다.

1918년 11월에는 만주 길림(吉林)에서 김교헌·김동삼·조소앙·이동녕 등 39인이 “무오(戊午)독립선언”을 발표하였는데 박찬익도 39인 중 1인으로 서명했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상해로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921년 7월에는 임시정부 외무부 외사국장 겸 외무차장 대리로서 대 중국 외교에 주력했다.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3) 심상각(沈相恪) 1888~1963

1919년 파주에서 3.1운동의 중심 인물도 활약했으며, 이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상해농업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신교육을 받으면서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약 10년간의 임시정부 활동을 마감하고 국내에 돌아와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파주 광탄면에 광탄보통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하여 후진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전념했다. 1977년 대통령 표창 추서.



4) 윤기섭(尹琦燮) 1887~1959

1910년 일제강점 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교감을 역임했다. 1920년 8월 폐교될 때까지 약 2천여 명의 독립군 정예들을 양성,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1919년 4월 유하현 삼원보(三源堡)에서 한인 교포의 자치기구이자 남만주 일대 독립운동의 총본영으로 조직된 한족회(韓族會)의 학무부장으로 활약했다.

1925년 12월 임시정부 국무원에 선임되었고, 1929년 상해에서 김구, 조완구, 조소앙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에 참여했다. 1935년 남경(南京)에 김규식, 지청천, 신익희 등과 민족혁명당을 조직했고 이어 홍진(洪震)등의 신한독립당을 흡수, 통합하여 한층 집결된 역량을 갖추고 항일 독립운동에 주력했다.

1950년 6.25전쟁 때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납북된 후 1959년 북에서 서거, 평양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었다. 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5) 정태진(丁泰鎭) 1904~1952.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1927년 미국에 건너가 우스터 대학 철학과를 거쳐 콜럼비아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31년 귀국하여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으며, 1941년 6월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편찬 전임위원으로 활약했다.

1942년 10월에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한국어 말살정책으로 만들어 낸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체포되어 함경남도 흥원경찰서와 함흥경찰서에서 일제의 잔혹한 고문과 악형을 받았다. 1945년 1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의 언도를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8·15광복을 맞아 출옥했다.

1952년 「우리말 큰사전」 속간을 위해 서울에서 편찬사업에 전력하다가 전쟁중 교통사고로 서거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사랑과 존경을 담아, 김마리아 선생님께



이 충 옥
(사)김마리아선생기념사업회 이사
정신여고 교장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고국 형님!’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 지면을 빌어 편지를 보내신 것은 미국에 망명하셔서 ‘미주리 주’에 있는 ‘파크 대학’에서 공부하시던 1924년 신년을 맞이하는 때였습니다.

1892년 7월 11일 태어나셨으니 편지를 보내시던 때는 3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편지는 60이 가까운 제가 읽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선구자적 정신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저는 선생님이 졸업하신 정신여학교 후배입니다. 선생님은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던 때에 저희 학교를 4회로 졸업하셨습니다. 일제는 ‘조선교육령’을 발동하여 황국신민화하려는 정책을 폈지만 본교는 일제의 교육령을 거부하고, 기독교 민족교육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일본 유학 후 귀국하여 우리학교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독립의 뜻을 펼치며 오가시던 학교의 세브란스관은 아직도 종로구 연지동에 그 모습 그대로 서있고, 애국 서적을 묻고 만세운동을 하던 회화나무도 선생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고고하



▲ 정신 여학교 교사 시절 김마리아 선생

게 교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후배들은 선생님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든 교정에서 공부하며 그 뜻을 이어가기를 다짐하며 자랐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서도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은 불굴의 정신입니다. 1919년 동경 2·8 독립선언서를 품고 조선에 귀국하여 3·1 만세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해 11월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경에 다시 검거되어 회장인 선생님을 포함하여 임원 전원이 체포되어 다시 대구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이때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하여 혼절하기도 하여 법정에 거의 죽은 몸으로 출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검사 카와무라에 대하여 ‘나는 일

본의 연호(年號)는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우리 국민의 희망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일제의 검열 속에서도 전국에 모든 재판 상황을 전국에 타전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희망인 선생님을 혹 잃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마침내 1921년 7월 21일 선생님을 상해로 망명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거의 죽음과 싸우며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 위해위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1923년 7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셨습니다.

편지는 이즈음에 고국의 형님께 보내신 편지입니다. 여기서 ‘형님’은 고국의 모든 동포들에게 보낸 것으로 압니다. 이 편지를 대할 때면 일제의 거짓과 불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선생님이지만, 진실 앞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시며 섬세하신지, 정겨움을 넘어 무한한 사랑에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의 신문을 통해 소식을 늘 접하며 ‘홍수와 가뭄의 피해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암울한 조국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새해가 와도 오히려 추운 날씨에 먹



▲ 순국열사 김마리아가 졸업한 정신여학교. 독립운동을 하다 이곳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아이들 걱정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망명하신지 2년여가 지났지만 선생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하긴 선생님은 귀국하여 원산 마르다 월슨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까지,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이 목숨을 바쳐 이루어낸 해방 조국에, 선생님의 뜻을 저희가 이어받아 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 아래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텐데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서신을 늘 마음에 새기며 저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선생님의 뜻을 이어주고자 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십시오. 



영화 <인터스텔라>, 인간 너머의 우주



이 두 희
자유기고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SF영화 <인터스텔라>(2014)는 지구 환경의 변화로 자급자족이 어려워진 인류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한 탐사대를 우주로 보내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우주비행사인 주인공은 다시 돌아오지 못 할 수도 있는 임무를 두고 가족과의 이별 앞에서 갈등하며, 영화의 이야기는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며 미지의 세계들을 하나씩 방문하는 순서를 따라 진행된다. 지구와 우주를 넘나드는 스케일과 가족의 사랑이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영화 <인터스텔라>는 난해한 내용과 긴 상영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객들로부터는 큰 관심과 함께 좋은 흥행 성적을 내고 있다.

<인셉션>(2010)이나 배트맨 시리즈와 같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인터스텔라> 역시 관객들은 이야기의 해석을 두고 이론적인 고증이나 사건 전개, 모순점 등을 다루며 갑론을박하기도 하고, 언론 역시 감독의 엄격한 촬영 원칙이나 천문학적 이론 등의 적용 등 영화의 제작 환경에 대해서 화제로 다루기도 하였다. 영화를 수용



하는 다양한 방식은 굳이 제한될 필요는 없고, 영화에 대한 가치 평가와도 혼재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는 영화 속 이야기의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인터스텔라>의 영화보기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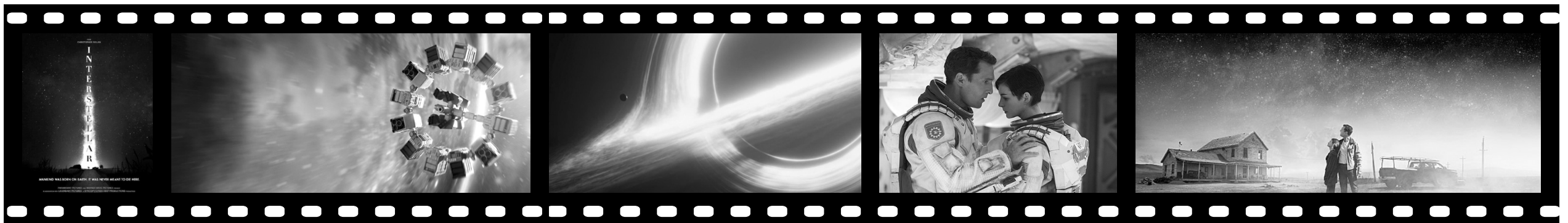
물론 지금까지 우주로 향하는 인간의 상상력은 낮설지 않았다. 고대 신화로부터 근현대 SF소설에 까지 하늘 너머의 우주는 인간에게 항상 외경과 동경의 대상이었었다. 그것은 불가해한 절대자에게 순응하여 생존을 꾀하는 방식이기도 했고,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이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주의 의미란 절박하리만치 제한적이다. 그 의미란 인류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우주란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된 또 다른 지구의 계속이어야 할까? 우주 속에서 또 다른 지구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아닐까?

영화 속 이야기에서 인간이 의미의 중심이 될 때, 우주란 무엇보다 인간의 눈에 보여야 하는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워홀을 통한 항성 간 여행이 되었든, 블랙홀로 빠져들어 돌아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을 넘어서는 일이든, 영화 안에서 그려지는 모든 사건의 설득력은 오로지 보여 질 수 있는 것, 그 가시성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시각적 경이로움과 함께, 아이맥스 영화관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한 관객들의 체험 방식, 그리고 천체물리학에 기초한 영상이라는 이론적 설득력 등이 모두 영화 <인터스텔라>에 관객들이 감동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눈은 실제 우주를 볼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을까? 천문학의 물리량에 비해서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우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조차 사실 하나의 착각은 아닐지,

혹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신한 나머지 보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은 아닐까?

영화 속의 세계는 관객들 대상으로 구성된 '눈에 비치는 세계'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곧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진다. 워홀이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영화 속에서는 워홀이 나타나는 것만으로 해결된다. 인류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을 찾는 여행도 역시 관객의 눈으로 그 행성의 표면을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다시 말해 보여 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영화는 그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눈을 현혹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를 통해 항상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었지만 동시에 그 시각적 현란함을 다루는 데도 역시 재능이 있는 감독이었다. 이를테면 <인셉션>과 같은 영화에서 관객들은 눈으로 영화를 쫓기 바쁜 나머지 일어나는 사건들의 관계나 필연성 등을 미처 따져보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보이는 것만이 영화의 전부라면, 관객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놀란 감독의 영화들의 능력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보이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의 불일치 혹은 둘 사이의 과소과대와 같은 불균형이 현실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 영화에서 연출된 모든 것들에 꼭 걸맞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의미가 제한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의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 기술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영화라는 매체에 아직 남겨진 가능성들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 영화 <인터스텔라> 중에서



한편 우주에 대한 인간의 여러 가지 상상력은 SF소설들로부터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서 C. 클라크의 소설 <낙원의 샘>(1979)은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는 궤도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 줄거리의 SF소설이다. 이 소설의 배경은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이지만, 중대한 사건이 인류에게 일어난 이후이다. 그 사건이란 ‘스타글라이더’라는 미지의 문명이 보내온 우주선과 인류가 대화를 하게 된 일이었다. 지구로부터의 전파를 스스로 이해하고 말을 건네는 미지의 존재에게 인간들은 인류 문명의 성취를 증명해보고자 하지만, 결국 인간만이 유일한 지적 존재라는 믿음과 창조주와 절대자를 근거로 하는 종교의 의미는 간단하게 부정 당한다. 스타글라이더의 대답은 “지구가 속한 5범주 수준의 문명 174개 중 종교적 행위는 모두 3개의 문명에서 발견되었다”는 건조한 답변뿐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 소설은 문명에 대한 심각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지금 인류 문명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리라는 상대적인 상상력을 담고 있을 뿐이었다. 즉, 영화 <인터스텔라>의 우주가 상상 가능한 우주의 전부는 역시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 너머의 또다른 우주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세계를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선은 우리들 문명의 자기중심적인 한계를 벗어날 때, 그로써 전쟁과 야만의 자기 파괴적 역사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인류는 인간 너머의 존재, 낯선 세계를 만날 자격이 되어있을 것이다. 비록 아직은 아득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말이다.

총칼이 두렵지 않던 전주 기전의 딸 ‘김공순’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황후를 시해하고 고종을 독살한
검은 마수 더 이상 참지 못해

남문 밖서 성난 파도처럼
흰 소복에 머리띠 질끈 동여매고
뛰쳐나온 기전의 어린 처녀들

총칼의 무단 조치 굴하지 않고
피로써 만든 태극기
목숨 걸고 흔들며 저항할 때

비수에 맞은 심장
숫구치는 붉은 피에
널뛰던 가슴 가슴

최후의 1인까지 광복의 그날 위해
뭉치리라 외치던 기전의 절규
비사벌 너른 들에
울려 퍼졌네.

김공순(金恭順, 1901. 8. 5 ~ 1988. 2. 4)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주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재학 중 1919년 3월 13일전주면(全州面) 남문 밖 시장부근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항일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13일 전주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정하고, 김공순 등은 신흥학교 지하실에서 호롱불을 켜 놓고 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제작하였다. 그리고 거사 당일에는 채소가마니에 태극기를 숨기고 운반하였으며, 정오 남문에서 울리는 인정소리를 신호로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문학세계》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시집으로는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있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전 4권,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41 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FLOWERING LIBERATION -41 Women Devoted to Korean Independence』등이 있으며 친일풍자시집 『사쿠라 불나방』과 우리말 속의 일본말 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 『오염된 국어사전』의 다수.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 지은이 | 김자동 • 출판사 | 푸른역사 • 쪽수 | 406쪽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 처리를 논의한 얄타 회담에서 소련은 한반도 독립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신탁통치를 고수한 회담록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이 최근 출간한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푸른역사)다. 일반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신탁통치는 모스크바 3상회의 전부터 미국이 구상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책에서 자신이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 시절 찾은 64쪽짜리 얄타회담 비밀문서 내용을 인용했다. 이는 얄타회담 11년 뒤인 1956년 미국 뉴욕타임스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던 내용이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총리, 스탈린 소련 수상이 모인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건 미국이었다. 책에 따르면 스탈린은 한반도를 바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루스벨트는 3개국 혹은 4개국에 의한 후견기간 즉 신탁통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스탈린도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고 “신탁통치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40년간의 후견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필리핀을 40년 간 훈련시켰지만 아직도 독립 준비가 미흡하다”는 게 루스벨트가 내세운 근거였다. 결국 루스벨트는 5년 이상으로 기간을 줄이지만 스탈린은 그것보다 짧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한다.



루스벨트는 회담 약 2개월 뒤 뇌출혈로 세상을 뜨지만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은 그 해 12월 열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실현된다. 한반도는 반탁과 찬탁으로 나뉘어 대립했고 좌우 반목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김자동 회장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장 5년의 신탁통치 결정은 사실상 알타에서 잉태됐다”며 “당시 반탁 대열에 있던 이들은 소련의 주장으로 신탁통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독립문의 현판을 쓴 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이완용이 아닌, 자신의 조부 동농 김가진이라는 주장도 책에 실었다. 동농은 조선 말기 문신으로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했다. 김 회장은 동농의 편역서, 이완용이 쓴 김천 직지사 대웅전 편액과 독립문 현판의 필적을 비교했다. 김 회장은 “이완용은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원나라 설암 류의 서풍을 따랐기 때문에 한눈에 ‘독립문’ 글씨와 다름을 알 수 있다”며 “독립문의 한문·한글 편액은 김가진의 필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평생을 백범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한 부친 김의한, 그를 도운 모친 정정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에 이르기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임시정부 28년간의 활동을 기록했다. 3년 전 비매품으로 엮어냈던 ‘상하이 일기’를 보완해 이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 출판했다.

박덕진 임정기념사업회 연구실장은 “임정 인사들이 왜 국가와 민족에 자신을 던졌는지 한 독립운동 가족의 역사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임정 막후, 국제정치 무대의 뒷이야기도 기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김지은 기자 —



녹두 전봉준 평전

• 지은이 | 김삼웅 • 출판사 | 시대의 창 • 쪽수 | 568쪽



조선 남도의 범부 출신 전봉준이 한국 근대사의 걸출한 ‘반역자’가 되어 반봉건과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맹활약하다가 장렬하게 산화하기까지 그 일대기가 바른 역사 찾기에 앞장서고 있는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의 꾸밈없는 필력으로 되살아난 책이다.

영웅 만들기에 급급한 찬사 일변도의 여타 위인전기와는 달리, 서로 다른 관점의 사료들과 관련 분야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편향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논란거리인 몇몇 주제들에 구애되지 보다는 오히려 조선 후기 시골 출신인 일개 농촌지식인이 세계 민중사에 유래가 드문 혁명군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전반적인 과정을 경이로운 시각으로 그려내는 데 주력했다. 일반 평전에 비해 여러 문인의 글과 시도 비중 있게 수록되어 있어 한 권의 문학 전기로도 손색이 없는 평전이다.

범부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민중혁명 지도자로 산화한 영혼에 바치는 서사시

역사책 속에 나오는 태생과 환경이 비범한 인물들 가운데서 전봉준은 하나의 혁명 같은 존재이다. 조선 후기 대부분의 농민들처럼 주목받지 못한 채 빈곤하고 고된 일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평민으로 자랐으나 마침내 한국 근대 민중사의 절정인 동학농민전쟁의 지도자가 되고 세도정치의 폐해와 제국주의의 위협 아래 신음하던 조선 후기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체제를 주창한 진보적 사회정치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봉준은 민중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이번에 나온 <녹두 전봉준 평전>은 전봉준의 이와 같은 일생의 변모를 다룬 책으로, 조선 후기 평범한 농촌지식인이 한국 근대 민중사의 절정인 동학농민혁명을 진두지휘한 민중의 명장으로 우뚝 서는 과정을 우선 놀라운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전봉준의 일대 변신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다루기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사료와 기존의 연구 자료가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논란거리들(전봉준과 대원군과의 관계, 김개남 장군과의 관계 등)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관심사를 전개하는데, 특히 동시대의 대다수 농민들과 같은 삶을 이어가면서도 팍팍한 조선의 현실을 직시한 채 좋은 세상을 실현하고자 보국안민의 길을 궁리하던 전봉준이 동학에 입교하여 그 길을 찾았다고 했으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위하는 길이 반봉건, 반외세의 투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그에게 민본주의와 동양 사상의 주체성을 강조한 동학이 정신적 지주이자 농민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적 활동의 원천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책은 1894년 고부에서 일어나 이듬해 3월 치형되기까지 전봉준이 진두지휘한 동학농민전쟁은 19세기 말 이 땅의 민중이 어떻게 역사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는지를 보여준다. 접전과 휴전 시기를 아울러 1년 4개월 남짓한 전쟁 내내 동학농민군의 최고지휘자 자격으로 전봉준이 고시한 격문과 통문들을 살펴보고 특히 전주화약이 체결된 이후 집강소 설치와 운영을 중심으로 그가 지휘한 농민군의 활약상을 주목하면 동학농민전쟁을 당시 지배계급과 외세에 대한 단순한 ‘저항’으로만 치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독자들은 동학농민전쟁이 저항을 넘어서서 우리 근대사에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지향한 사회적, 경제적 방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전국에 집강소가 설치되고 유능한 공화주의자들이 정사를 맡으면 농민군들은 생업(농업)에 복귀하여 그 본분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전봉준의 발언을 반추하며 그 답을 가늠해볼 일이다. 또한, 현존하는 사료와 기존의 학문적 연구 결과의 틀을 벗어나 여러 편의 시를 비롯한 문학 작품을 옮겨놓은 서정성이 강한 평전이어서 딱딱한 역사 속 인물서가 아니라 마치 한 권의 영웅시를 읽는 듯한 감흥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범부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변모하면서 붕기했던 때를 고질적으로 닮은 시대를 살고 있다. 분단과 외세의 극복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다. 무슨 영웅이나 대단한 애국자는 아닐지라도 이런 동시대의 현실을 직시한 채 우리 사회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고민하는 분들에게 특히 일독을 권한다.



친일문학론

• 지은이 | 임종국 • 출판사 | 민족문제연구소 • 쪽수 | 528쪽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인 1966년 7월 출간되어 지식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으며, 1970-80년대 암울했던 독재정권시기 옥중 필독서로 인기를 끌었던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이 한층 정교해진 내용으로 다시 선보였다. 초판이 발간된 지 거의 50여 년 만에 사실상의 개정판이 발간된 것이다.

<친일문학론>은 친일문제 연구의 단서를 연 기념비적 저작으로 문학은 물론 각 분야에 두루 영향을 끼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많은 저술과 논문들이 여기에서 시사점을 얻었으며 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2009년 11월 발간된 <친일인명사전>도 그 정신사적 원류를 <친일문학론>에서 찾고 있다. <친일문학론>이 없었다면 ‘친

일’이라는 금기의 영역은 여전히 깨지지 않은 채 온전한 성역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교주본 <친일문학론>은 원저의 골간을 건드리지는 않았으나 전면적인 검증을 거쳐 오류를 바로잡고 읽기 쉽게 재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첫째, 원저에 기술된 기초 사실이나 인용문을 철저히 원자료와 대조하여 오기와 오역, 착오 등을 바로잡았다.

둘째, 어려운 한자말이나 당시 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나아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을 각주(전체 각주 373개)로 처리하였다.

셋째, 한자어, 인명, 지명 등을 가능한 한 한글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였다. 378명의 한자 표기 일본인명을 각종 근거를 찾아 일본어 발음으로 풀어낸 것도 특기할



만한 성과이다.

넷째, 주요 전거인 <매일신보> <국민문학> 등 각종 신문 잡지를 일일이 대조하여 정확한 수록일자를 밝혀냈다. 특히 원저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문학작품에 대해 출전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전문 연구자들의 후속작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저에 없는 인명색인을 첨부하여 본문에 나오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1,100여 명의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200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문학론> 증보판을 발간한 뒤, 어려운 용어와 한자가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니 대중적인 글쓰기로 순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있어왔다. 내외의 우선적인 요구는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풀어쓴 친일문학론’이었다. 그러나 <친일문학론>이 워낙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선불리 손을 대기에는 원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우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전면적인 교주 작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게 됐다.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편찬과정에서 방대한 분량의 친일 관련 자료가 수집, 발굴되고 사료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을 본 점도 이 지난한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한 배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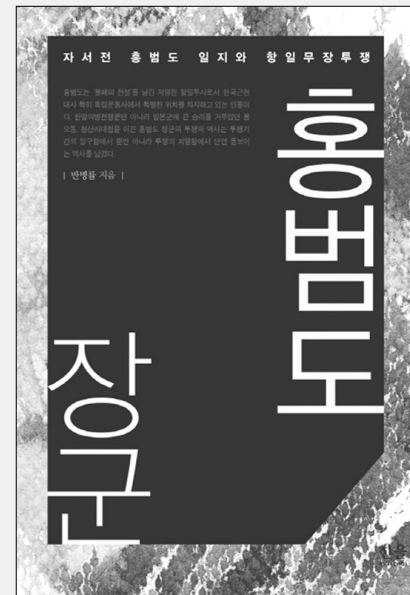
<친일문학론> 발간 직후 시작된 개정작업은 연구소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예상과는 달리 진전이 더디기만 했다. 지지부진하던 작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이는 일본에 체류 중인 문학평론가 이진제 박사였다. 근대문학 전공자이면서 친일문제에 정통한 이박사가 일종의 재능기부로 이를 전담하여 2년간에 걸친 치열한 작업 끝에 마침내 올해 초 교열 및 주해작업을 완료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이진제 박사는 책의 말미에 수록된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을 둘러싼 각종 담론들’에서 <친일문학론> 발간 이후 이 책과 연관된 평가나 논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20여 편의 학술논문을 소개하는 한편 비판론과 옹호론을 대별하여 분석하고 있다. 더하여 신문기사, 광고문, 서평, 인상기와 회고담까지 꼼꼼하게 섭렵하여 임종국과 <친일문학론>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미를 가늠하게 해준다.

최근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는 선각자로서 임종국의 대일 경계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비롯한 일제지배 긍정론의 대두나 친일파 추종세력의 공공연한 역사왜곡 등 국내의 우려스런 현상도 임종국의 작업이 시효가 끝난 것이 아님을 반증해 준다. 그래서 <친일문학론> 교주본 출간이 갖는 의미가 더욱 현재적으로 다가온다.



홍범도 장군 자서전 홍범도 일지와 항일무장투쟁

• 지은이 | 반병률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 쪽수 | 264쪽



2014년 6월 7일 봉오동전투 94주년. ‘봉오동전투’, ‘청산리대첩’ 하면 김좌진 장군만 떠오르십니까? 홍범도는 청일전쟁 이후인 1890년대 후반 항일의병투쟁에 나선 이래 3·1운동 이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로 대표되는 항일무장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군의 실력양성 및 교육에도 힘썼던 항일운동지도자이다. 홍범도는 ‘불패의 전설’로 기록되고 있는 저명한 항일투사로서, 투쟁의 역사는 투쟁기간의 장구함에서 뿐만 아니라 투쟁의 치열함에서 단연 돋보이는 역사를 남겼다. 부하들이 애정과 존경을 담아 부르던 “홍 대장” 진정한 일반 민중의 영웅으로 기억하라.

홍범도는 ‘군벌적 계급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있었던 양반이나 지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전형적인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자 독립군 지도자였다. 부하들은 함께 노동하고 고난을 나누며 투쟁했던 지도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홍범도를 ‘홍 대장’이라고 불렀다. 러시아(소련)로 망명한 이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떠난 홍범도 장군은 1943년 10월 25일 75세를 일기로 서거하기 전까지 고려인들의 크나큰 존경을 받은 민족의 영웅이었다. 홍범도를 기리는 연극 <홍범도>가 여러 차례 공연되었고, 말년에 거주하던 집은 크즐오르다의 역사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집 근처에는 ‘홍범도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지금도 그를 추모하는 기념사업이 이어지며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다. 이 책은 「홍범도 일지」의 세 가지 필사본을 모두 참고하여 일지를 현대어 표기로 바꾸고 주(註)를 달아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홍범도의 독립무장투쟁과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하여 살던 말년의 모습까지 연구한 논문도 담고 있어 홍범도 장군의 전반적인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전쟁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날의 이야기

• 지은이 | 임기상 • 출판사 | 인문서원 • 쪽수 | 328쪽



20세기 대한민국,
그 찬란하고 참혹했던 시절에 대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

- 「혈의 누」의 작가 이인직은 이완용의 비서로 나라 팔아먹기에 앞장선 악질 매국노였다?
- 고종 황제는 베이징으로 망명을 시도했다?
- 경천사지십층석탑은 조각조각 해체되어 현해탄을 건너갔다가 돌아왔다?
- 독립군을 때려잡던 조선인 부대가 있었다?
- ‘요절한 천재’ 전혜린의 아버지가 백범 김구 암살을 지휘했다?

국사 교과서에 건조하게 한 줄로 나오는 케케묵은 사실의 나열이 아닌,
옛이야기처럼 술술 읽히는 재미있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28편.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전쟁까지, 격동의 20세기 대한민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펼쳐진다!

‘겉절이’ 현대사는 가라!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본 20세기 대한민국사

우리 현대사는 적어도 국사 수업 시간에는 ‘겉절이’ 신세다. 고조선부터 조선 시대까지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정작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현대사는 교과서 맨 뒷장에 부록이나 장식처럼 달랑 몇 페이지가 실려 있을 뿐, 연표를 그저 문장으로 풀어 놓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건조하기 짝이 없다.

당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가 왜 이토록 푸대접을 받을까? 우리 현대사가 식민지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이후의 분단과 전쟁이라는 진한 아픔과 이데올로기 싸움 등 핏빛 갈등으로 얼룩져 있고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추천사를 쓴 역사저술가 박은봉의 말대로 “불편하다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다름 아닌 근현대사”이다. 왜냐하면 “근현대사는 현재의 내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만든 것이 바로 한국 근현대사”이기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툭툭 불거지는 ‘친일파’ 논란 역시 역사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문제 아닐까. 역사의식이 다른 어떤 때보다 중시되어야 할 지금, 기계적으로 외우고 편파적으로 배우는 역사가 아닌, 우리 근현대사를 민족주의와 휴머니즘이라는 따뜻한 시선으로 재구성한 재미있는 역사책이 나왔다.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는 제목 그대로 ‘숨어 있는’ 우리 역사 속에서 드라마틱한 에피소드와 파란만장한 인물들의 삶을 발굴하여 교양으로서의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구한말과 대한민국 사이, 20세기를 뒤흔든 사건 속 28가지 이야기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는 국사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현대사의 틈바구니, 내일을 살아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간순간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얼핏 차례만 보면 가벼운 역사서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수많은 작가들이 피땀 흘려 복원해낸 진중하고 생생한 사실들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는 국어 시간에 이인직의 신소설 「혈의 누」에 대해 ‘최초의 신소설’이라고만 배우며 이인직은 ‘최초의 신소설을 쓴 선각자’라고만 배운다. 그리고 이인직이 친일을 했다는 사실은 이력에서 스치듯 ‘친일파 논란이 있다’ 정도로 끝난다. 그런데 이인직은 어떤 친일을 했을까? 대부분의 문인들처럼 일본의 제국주의 행위를 찬양하거나 조선인이 전쟁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글을 썼을까?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는 이인직의 뜻밖의 친일 행적을 들려준다. ‘매국의 아이콘’ 이완용의 비서로 한일병합조약에서 실무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인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측 실무자를 만나서 매국의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했고, 심지어 일본의 조건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 조건’이라며 좋아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우당 이회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을까? 이회영이라는 이름 석 자조차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 당대 손꼽히는 명문가의 후손이었던 이회영은 나라가 강제병합당한 1910년



전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망명했다. 독립운동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고, 일제에 체포되어 고문사했다. 구한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온몸으로 실천한 지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런 이회영의 독립운동 행적 가운데 미완에 그쳤지만 대단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고종 황제를 베이징으로 망명시켜 망명정부를 세우자는 것이었다. 거사가 무르익어 갈 무렵 애석하게도 고종이 급서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우리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드라마틱한 순간의 발굴이다.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는 이처럼 “우리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들과 그 사건의 주역인 생생한 인간 이야기”를 간결한 필치로, 생생하고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 역사 왜곡의 전초기지였던 조선사편수회의 정체, 99간 임청각 마당이 싹둑 잘려나간 한 맺힌 사연, 정천사지침층석탑이 현해탄을 건너갔다 온 우여곡절, 백범 암살을 지휘한 전봉덕과 요절한 천재 전해린의 관계 등 우리가 잘 몰랐던 28가지 사건과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를 복원한다. 연대를 중심에 두기는 했지만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나란히 두어 하나의 사건과 관련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복원될 수 있게 세심하게 배치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가 국사 교과서에서 삭제당한다?

대한민국이 수많은 역사의 질곡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성취를 이룩한 지금,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는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가 읽어야 할 역사책이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치열하게, 온몸으로 그 시대를 통과해 왔는지를 소설처럼 생생하게 들려주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사는 일본인들의 것이고, 미국의 역사는 미국인들의 것이듯이, 한국의 역사는 다른 어느 민족도 아닌 우리 한국인들의 것이다.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가 국사 교과서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로 기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무다. 우리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여 후세에 전달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주겠는가? 그런 면에서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내일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어나가면서 우리 현대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역사의식을 키우는 데 최고의 역사교양서가 되어줄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1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근대 감옥의 가치 발굴과 비교 연구’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11월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강의실에서 ‘동아시아 근대 감옥의 가치 발굴과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과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올해 2월 ‘서대문형무소’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자는 시민모임이 발족되는데 이어 국회, 경기도의회,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유네스코 등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총 6가지 소주제를 다뤘다.

김삼웅 前독립기념관장이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우리근대건축연구소 김정동 소장이 서대문형무소의 건축사적 의의에 대해 기조 강연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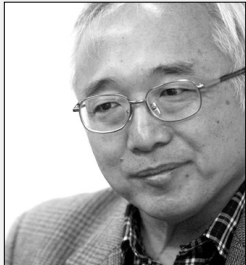
또 중국 여순감옥박물관 주애민 연구실장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근대 감옥의 보존과 활용 비교’란 제목으로 발표했으며,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이종민 연구원은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활용되는 일본 아바시리 감옥, 가나자와 감옥의 사례를 소개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김태동 학예연구사는 6가지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소 2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대문형무소가 세계유산으로서 등재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실무를 맡은 남한산성 관광사업단 조두원 박사가 서대문형무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들 발표 후 문화유산학 전문가인 일본 쓰쿠바대 미즈시마 에이치 교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장석홍 소장,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이재근 사무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 등이 서대문형무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심도 있는 종합 토론을 벌였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서대문형무소가 지닌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발굴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제8회 임종국상 시상식



김 효 순

11월 12일 오후 7시에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8회 임종국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임종국상 학술·문화 부문에 선정된 김효순 대표(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는 저서 「간도특설대-1930년대 만주, 조선인으로 구성된 친일토벌부대」를 통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탄압으로 악명 높았던 조선인특설부대를 최초로 분석했으며, 특히 이 부대 출신 한국인들이 추후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과정까지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언론 부문에 선정된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 결성된 이래 일본 사회의 우경화 바람 속에서도 조선인 군속·징용자·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파헤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종국 선생은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불평등한 한일관계의 구조적 원인을 해명하고 민족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하여 1966년 「친일문학론」을 저술하였다. 올바른 민족사 정립을 향한 임종국 선생의 실천적 삶과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임종국상은 2005년 제1회 임종국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올해 8번째를 맞이하였다.

제7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매년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로 지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은 '순국선열의 희생, 평화통일로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오전 11시 효창공원 내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로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관련단체장, 정부 및 각계 주요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순국선열의 날 약사 보고, 독립유공자 정부포상과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로 공적이 확인된 43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루어졌다.

‘난앞으로 칼을 얻다’ - 우당 이회영과 6형제 전시회



전시개막일인 11월 17일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기도 하며, 1932년 우당 이회영 선생이 뤼순감옥에서 순국하신 날이기도 하다. 전시공간인 덕수궁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치욕의 현장이었다. 이곳에서 조선 최고의 명문 가문인 이항복의 10대 손 우당 이회영 일가가 오롯이 대한독립을 위해 신분, 재산, 목숨, 가족 그 모든 것을 희생했던 거룩한 독립정신을 기리었다.

전시회 개막식은 서해성 작가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예원학교 학생들이 신흥무관학교 교가와 압록강 행진곡을 불러 축하했으며, 고은 시인의 '이회영' 시 낭송과 망명객을 상징하는 중절모 퍼포먼스가 있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이번 전시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우당의 후손인 이종찬 前국정원장, 이종걸 의원과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독립운동가 후손들 및 많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했다.

독립운동 초기 신민회 핵심으로 활동한 우당 선생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동지들과 헤이그 밀사 파견을 기획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한일합방이라는 이름하에 나라가 망하자 6형제 전원과 일가족 50여 명이 전 재산을 정리하여 망명을 떠난다.

우당일가의 재산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 조원의 금액이 되는데, 이 전 재산을 처분해 만주로 망명, 신흥무관학교

를 세우는 등 독립운동자금으로 썼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자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우당은 묵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墨蘭)을 내다팔아 독립자금을 마련하였다. 전시회의 주제로 '난앞으로 칼을 얻다-우당 이회영과 6형제'로 명명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올해 3월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우당의 묵란(墨蘭)과 부인 이은숙의 〈서간도시종기〉 육필 원고를 처음 공개한다.

• 전시일정 : 2014년 11월 17일(월) ~ 2015년 3월 1일(일)

• 전시장소 : 덕수궁 중명전

• 주관 : 우당 이회영과 6형제 전시위원회

‘백범 김구의 삶과 독립운동의 재조명’ 학술대회



11월 21일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와 백범김구기념관은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광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크게 5주제로 나누어 토론되었다. 김희곤 교수(안동대학교 사학과)가 제1주제로 ‘사진으로 보는 백범 김구의 삶’을 다루었고, 제2주제인 ‘백범 김구와 동학’은 성주현 교수(청

암대학교)가 발표를, 이준식 교수(연세대학교)가 토론을 맡았다. 제3주제는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과도정권 수립’으로 오대록 연구원(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 발표를, 정병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가 토론을 맡았다. 제4주제는 ‘풍옥상과 한국독립운동’으로甘露 연구원(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부지진열관)이 발표를, 한상도 교수(건국대학교 사학과)가 토론을 맡았다. 제5주제는 ‘1882년 이응준 국기 관련 자료 검토’로 김도형 책임연구위원(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 발표를,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가 토론을 맡았으며, 한시준 교수(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장)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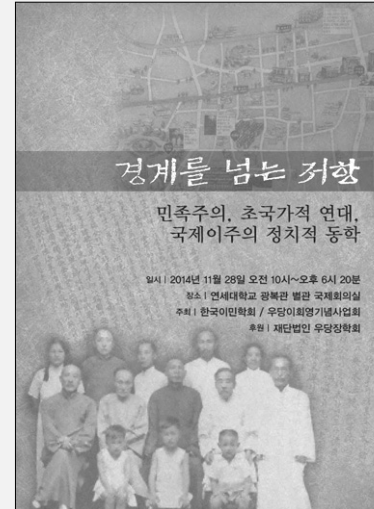
이번 학술회의는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일생을 다 바친 겨레의 큰 스승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제7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 광복회 호주지회(회장 황명하) 시 영역대회 시상식



11월 17일 호주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호주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 영역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총 10명의 학생이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 상품이 수여되었다. 본회 조세현 이사가 우수상(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상장)에 선정된 민윤지 학생에게 상장을 대리 수여했다. 민윤지 학생은 독립운동가 강수원 선생의 외증손녀이다.

‘경계를 넘는 저항 : 민족주의, 초국가적 연대, 국제이주의 정치적 동학’ 학술회의



11월 28일 한국이민학회와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가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경계를 넘는 저항 : 민족주의, 초국가적 연대, 국제이주의 정치적 동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회의는 반제국주의 운동의 초국가적 면모와 우리의 이민사를 검토하고, 반제국주의 국제연대의 역사를 검토하자는 뜻에서 기획한 것이다.

한국이민학회 회장을 지낸 한경구 서울대 교수는 기초강연 ‘경계를 넘는 저항’을 통해 한국 민족운동의 경험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운동으로 재조명해야 한다며 우당 이회영의 무정부주의 사상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부에서는 ‘경계를 넘는 저항 : 반제국주의와 국제교류’라는 주제로 김정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양지혜 한양대 교수, 조세현 부경대 교수가 발표를 했고, 제2부에서는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가 ‘잃어버린 25년 : 일본에서 배외주의의 대두 과정에 대한 사적 회고’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제3부 주제인 ‘난민의 삶과 저항운동의 지구적 함의’에서는 Hans Schattle(연세대), Yiombi Thona(광주대), 김귀옥 한성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그 중 김귀옥 교수는 ‘식민지적 디아스포라와 저항하는 여성 : 이은숙과 정정화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을 다루었다.

단재 신채호 선생 탄신 134주년 추모기념행사



겨레의 사표이자 언론인의 스승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 탄신 134주년 기념식이 12월 8일 청주시 단재신채호선생 묘정 앞에서 열렸다.

이날 탄신 기념식에는 남만우 전 광복회장 직무대행,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김원웅 회장, 광복회 지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충북 부지사, 청주시의회 의장과 신씨 종친, 단체 회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단재 선생 탄신일을 기념하고 헌화했다.

한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언론인인 단재 선생은 1880년 충청도 회덕현에서 출생하여 선조로부터 한학을 배우고 청년시절 당시 최고의 학문기관인 성균관에 입학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구한말부터 언론 계몽운동을 하다 망명,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임정을 탈퇴, 국민대표자회의 소집과 무정부주의 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했다. 조선혁명선언(朝鮮革命宣言)으로 불리는 의열단선언을 집필, 발표하여 폭력에 의한 민중직접혁명을 주장하며 무장항일을 독려했으며 많은 사서를 집필하였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절친한 지인의 ‘보석금을 내주겠다’는 호소에 “친일하는 자의 도움은 필요없다”며 거절하고 1936년 중국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선생은 평소 “내 죽거든 시체가 왜놈의 발길에 채이지 않도록 화장해 재를 바다에 띄워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아무도 모르게 그의 유해를 들여와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상당산(上黨山)[419m] 기슭 옛 집터에 암장하였다. 이때 만해 한용운이 돌을 깎고, 오세창이 글씨를 새긴 비석을 신백우가 몰래 세웠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제13회 송건호 언론상



12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JTBC <뉴스룸>을 진행하고 있는 손석희 JTBC 보도담당사장이 ‘송건호 언론상’을 받았다. 이 상은 2002년에 제정된 상으로 언론민주화에 기여한故청암 송건호 선생의 올곧은 언론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암 언론문화재단과 한겨레신문이 공동주최 했다. 방송인 손석희씨는 좋은 저널리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뢰성 있는 보도를 통해 언론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2주기 추모식



12월 19일 효창원 윤봉길 의사 묘전에서 매헌 윤봉길의사의 순국 제8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일본 가나자와 형장에서 꽃다운 청춘 25세의 나이로 순국한 매헌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上海)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열린 ‘일본군 상해 점령 전승경축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수뇌부를 폭사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한국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2014년도 '임정 송년의 밤' 행사



12월 12일 18시 2014년도 임정 '송년의 밤' 행사가 경희궁 뷔페에서 열렸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는 임원 및 회원, 답사단 학생 등 90여명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만찬을 즐기며, 제10기 독립정신 답사단 영상을 관람하고 오락 시간 및 선물 증정 등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 감사드립니다.



서울 수송초등학교 4학년 9반(담임 배성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힘쓰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12월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독립 자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바자회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노력의 결실인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본회에 기부해 주었습니다. 서울 수송초등학교 4학년 9반 친구들의 예쁜 마음 하나하나가 모인 소중한 성금이 뜻 깊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송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4년 11월, 12월 회비납부자 명단◆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회원명	11월	12월
강만길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화순	30,000	30,000
강재욱	20,000	20,000	박익란	30,000	30,000	이호현	20,000	2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인석	30,000	30,000	이후삼	10,000	1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재민	10,000	10,000	임재경	10,000	1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정근	30,000	30,000	임진택	5,000	5,000
권상윤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임형진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반병률	10,000	10,000	장두영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광림	30,000	3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장팔순	10,000	10,000
김광재	5,000		빙인섭	30,000	3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서봉수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룡근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명철	10,000	1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정지완		5,000
김봉현	30,000	30,000	신경숙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삼웅	20,000	20,000	신명식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상백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성배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염기남	10,000	10,000	조영빈	5,000	5,000
김성록	10,000	1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소중	10,000	10,000	오성근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숙정	50,000	50,000	오은주	20,000	20,000	조준표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회환	20,000	20,000
김영일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용수	5,000	5,000	우상호	10,000	1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원규	10,000	10,000	원영애		3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유기수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위현	100,000		유상수	10,000	10,000	최권행	30,000	30,000
김윤수	30,000	30,000	유은숙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유종하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윤경자	20,000	2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희주	10,000	10,000
김정록	50,000	50,000	윤한옥	10,000	100,000	한의석	10,000	10,000
김종섭	10,000	10,000	이건웅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종배	20,000	20,000	이계환	10,000	1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중숙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홍용희	10,000	10,000
김윤영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황인자		30,000
김진모	20,000	2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황용만	5,000	5,000
김진영	10,000	10,000	이상훈	10,000	10,000	혜진스님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성배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영국	10,000	1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김홍수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응국	5,000	5,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일선	20,000	2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재선	5,000	5,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정재	50,000	50,000			
노영택		20,000	이종찬	100,000	100,000			
민향선	10,000	10,000	이창복	20,000	20,000			
박복삼	10,000	10,000	이창운	10,000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 철	10,000	10,000			
박동기	10,000	10,000	이학노	20,000	2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학호	10,000	10,000			
박아영		20,000	이향중	30,000	30,000			
박양수	10,000		이현배	30,000	3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현진	10,000	1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해준	20,000	20,000			

2014년 11월, 12월 특별회비

회원명	11월	12월
(주)오토 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아인슈대리점	1,400,000	
전봉성	100,000	
박창기	100,000	
안은찬	100,000	
채현국	100,000	
김위현	100,000	
(주)내일신문		10,000,000
변병식		500,000
이동철		360,000
서울수송초등학교(4-9)		198,780
김동준		10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여성독립운동가 ⑩

안창호와 서대문형무소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개최된 천장절 축하식에서 백천(白川)대장, 직촌(植村)중장, 야촌(野村)사령관, 중광(重光)공사 등이 사상한 윤봉길 의거가 일어났다. 일본헌병대와 총영사관 경찰은 독립운동가들을 수사하기로 하고 상하이 교민단장 이유필(李裕弼)의 집을 방문한 도산 안창호를 체포하였다. 이후 도산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겨져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고 중대 정치범들만 수감하는 특수 감방에 7호실에 수감되었다. 이 감방 6호실에는 김정련, 5호실에는 여운형, 8호실에는 오동진이 상하좌우로 김준연, 최양옥, 신덕영, 이선구, 김약수, 권오설 등 여러 애국지사들이 먼저 수감되어 신음하고 있었다.

도산은 서대문형무소 구금기간 중 일제의 취조에도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계속 독립운동하겠다.”고 답하였으며, 경성지방법원 공판 회부 시 변호사들은 무보수로 도산을 변호하겠다고 앞 다투어 나섰다. 최종 판결은 도산이 피검된 지 8개월 만에 내려졌다. 1932년 12월 26일 경성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과 좌좌목(佐佐木)검사 입회하에서 징역 4년 미결 구류 50일의 최종 판결이 구형되었다. 1심에서 공소권을 포기하고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 도산은 1933년 3월 28일에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일제는 도산과 같은 지도자나 애국 명망가가 입감하게 되면 보통범들에까지 사상적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반죄수와 사상범을 격리시켜 복역케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대전형무소에서 도산은 칠공장(漆工場)에 출역(出役)하여 종이로 노끈을 꼬아 옷 칠을 하며 수공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생활하다 1935년 2월 10일 오후 1시 20분에 형기 22개월을 남기고 가출옥하게 되었다.

출옥 후 도산은 국외로 나갈 것을 권유받았지만 자신은 국내에 남아 동우회와 국외의 홍사단 운동을 연결시켜 민족운동의 힘을 결집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황민화로 치달아가고 있었던 일제가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었다. 1937년 서울 종로경찰서 고등계는 동우회 간부들의 가택을 수색하고 이광수, 김윤경, 박현환, 신운국 등 10여 명을 검거하면서 검거선봉이 시작되었다. 이어 평양과 선천 지역에서도 검거가 진행되었다. 도산은 평양 대보산장에서 6월 28일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경기도 경찰부에 유치되었다. 대전감옥에서 가출옥한 지 28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었다. 취조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이 자행되었다. 이로 인해 최윤호, 이기운이 옥중에서 사망하였고, 김성업은 불구가 되었다. 도산은 7월 25일에 종로경찰서 유치장 제 1호실에 투옥되었다. 서대문형무소 측에서는 이전의 수감생활로 몸이 완전히 못한 도산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어 옥사할 우려가 있자, 일제 당국은 1937년 12월 24일자로 ‘병보석’이라 해서 도산을 급히 보석 출소시키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암정내과(岩井内科)에 입원하여 전문치료를 받게 하였다. 도산은 지병인 위장병 및 폐결핵증이 위중해졌고 수일 이내 병세가 위독해졌다. 병원에 입원한 지 두 달 반 뒤인 다음해 3월 10일 0시 5분 도산은 서거하였고 폐결핵, 장결핵, 복막염, 늑막염이라는 사인 진단이 내려졌다.

도산 안창호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거, 1927년 나석주의사 추도식 겸 강연회 개최 시, 1932년 윤봉길 의거 날, 1937년 동우회사건으로 총 4차례 투옥되었다. 이 가운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이다. 도산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민족단합과 실력양성에 바쳤으나 서대문형무소에서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순국하고 말았다.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한 그의 업적을 전부 살펴볼 수 없으나 서대문형무소의 수감생활을 통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독립운동에 대한 고민을 약간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100年 편지



편지를 보내주세요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919.4.13)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2019)을 맞아 쓰는 편지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인간형을 넘나드는,
역사와 상상이 조우하고 회통하는,
100년 편지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내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김구 선생이 되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13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통씩 메일로 발송되는
100년 편지는 현재 약 3,500명 정도 받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수신인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국민이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송되는 100년 편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속 인물에게 편지(원고지 5매~7매 분량)를 보내 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100년 편지를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로 연락주세요.

www.korea100.kr

보내주실 곳 : 100-10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빌딩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E-mail : kpg1919@korea.com

minkook100@naver.com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